

의료기기/디지털헬스 (비중확대)

의료기기, 코스닥을 구하라

김충현, CFA choognhyun.kim@miraeasset.com



CONTENTS

[요약] 의료기기, 코스닥을 구하라	3p
I. 디지털 헬스 전망	5p
II. 미용기기 전망	16p
III. 스몰캡 의료기기 아이디어	24p
종목 분석	29p
인바디 (041830) – Top picks	
씨어스 (458870) – 관심종목	

[요약] 의료기기, 코스닥을 구하라

01

디지털 헬스 전망 :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 인바디, 비만 치료가 체성분 분석을 만났을 때
- 씨어스, 따라올테면 따라와 봐.
- 루닛: 지옥에서 더 강해져 돌아왔다
- 아이센스, 순항 중인 CGM 사업과 '27년부터 시작될 글로벌 PL 유통
- 수술로봇: 고영(AI 모멘텀), 리브스메드(복강경 수술로봇), 큐렉소(글로벌 확장과 흑자전환)
- Top-pick(인바디), 관심종목(씨어스, 루닛, 아이센스, 수술로봇 기업)

02

미용기기 전망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면?

- 클래시스, 어렵지만 가장 정석적인 글로벌 성장 공식 수행 중
- 파마리서치, 리쥬란은 리쥬란이다
- 휴젤, 국내는 파트너십을 통한 제품 다각화 전략하며, 미국은 직판 강화
- 리센스메디컬, K-미용기기의 새로운 도파민
- Top-pick(클래시스, 파마리서치), 관심종목(리센스메디컬)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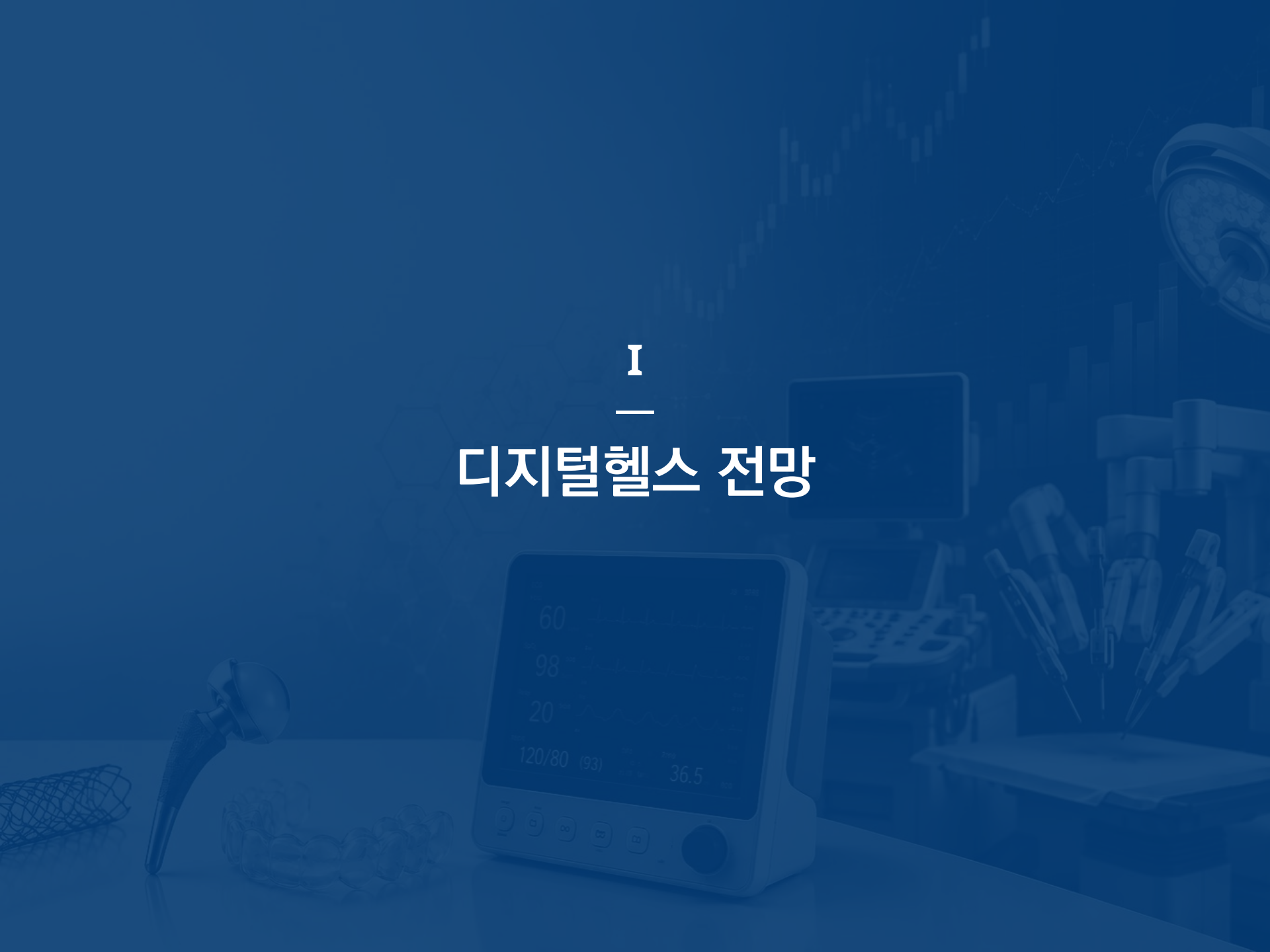
스몰캡 의료기기 아이디어

- 큐리오시스, 글로벌 ODM 추가 계약 모멘텀은 시작도 안 했다
- 씨젠, 4년 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로 돌아갈 시간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정상화된 넥스파우더 영업 + 넥스피어F 기대감
- 덴티움, 중국 2차 VBP만 시작된다면!
- Top-pick(씨젠, 큐리오시스), 관심종목(덴티움, 넥스트바이오메디컬)

I

—

디지털헬스 전망



I. 디지털헬스 전망: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① 인바디, 미국 비만 관리 시장 흥분해도 좋다!

- ① 체중 감량도 질이 중요: 비만 관리의 판도를 바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최근 임상적 과제는 '근육량 감소 최소화'. '25년 1월 FDA는 비만치료제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체성분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이 과정에서 체성분 분석기 시장을 사실상 창조한 인바디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
- ② 오프라인 체성분 분석 수요를 자극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 원격의료 플랫폼은 비만 치료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클리닉과 제휴하기 시작. 또한, 오프라인 클리닉은 원격의료 플랫폼과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 원격의료 플랫폼의 부상이 오프라인 서비스 업체의 체성분 분석기 도입의 촉매로 이어지고 있음

비만치료제 개발에서 체성분 분석의 중요성을 권고한 FDA

Loss of lean mass is observed after weight reduction in patients with obesity or overweight regardless of intervention type (lifestyle, bariatric surgery, or pharmacotherapy). Patients with obesity or overweight have greater lean mass than lean individuals, including greater muscle mass, higher bone density, increased organ weight (i.e., liver, kidneys, and pancreas), and greater absolute total body water (despite lower percentage body water). In pharmacological trials, reduction of fat mass has typically accounted for 60% to 90% of weight reduction, and the accompanying reduction in lean mass has not been considered adverse. To ensure that drug-induced or biologic-induced weight reduction is caused primarily by a reduction in fat content, not lean-body mass, a representative sample of trial subjects should have a baseline and follow-up measurement of body composition by DXA or a suitable alternative. Sponsors seeking an efficacy claim related to changes in body composition would need to consult with FDA early in development to align on the clinical condition being treated. Trial design, including appropriate choice of population and selection of endpoints that measure how a patient feels, functions, or survives, to potentially support such a claim is beyond the scope of this guidance.

자료: FD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바디를 활용하고 있는 비만 클리닉



SERVICES

Metabolic InBody Test

A science-backed approach to measuring your body composition & metabolism.

Get Started



INBODY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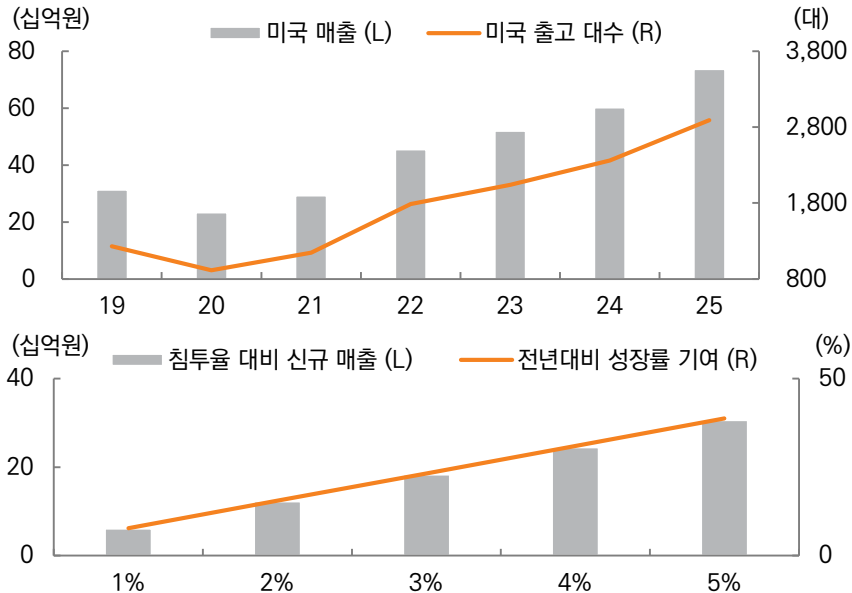
자료: Options Medical Weight Los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디지털헬스 전망: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① 인바디, 미국 비만 관리 시장 흥분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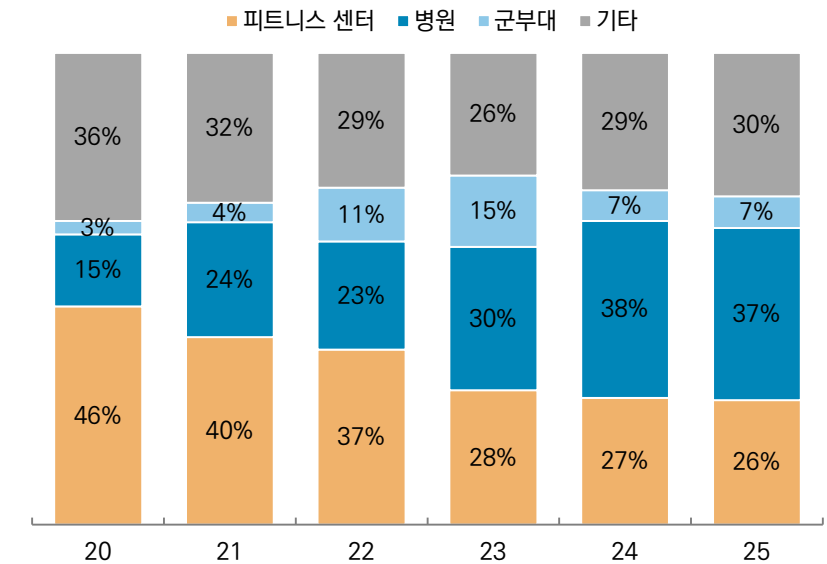
- 최소 5,000억원 이상의 미국 비만관리 시장: 위고비가 상용화된 '23년을 기점으로 병원은 미국 내 최대 고객으로 부상. 비만치료제가 비만관리 시장을 만들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음
- 미국 내 약 2.3만 개의 비만 클리닉 및 MedSpa 관련 시장 최소 5,300억원 예상
- 현재 미국 체성분 분석 시장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규모. 매년 3%씩만 침투해도 연간 약 200억원 매출 기대
- 비만치료에서 근육량 감소 최소화 트렌드로 제약사향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주목할 만함 → 4Q25~1Q26 중소 제약사에서 대량 구매 사례 → 절대 매출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인바디의 가치가 논문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장기적 브랜드 가치와 임상 레퍼런스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큼
- 비만관리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인바디의 미국 매출은 '27년경 +1,100억원 달성 전망

인바디 미국 매출 및 출고 대수, 비만관리시장 침투율당 매출 민감도



자료: 인바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시장 고객사별 매출 비중 추이



자료: 인바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디지털헬스 전망: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② 씨어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 동사는 입원 환경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표준장비와의 동등성 입증 데이터를 확보하여 웨어러블 기반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장을 만들고, 대웅제약이라는 굴지의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키움
- 대웅제약의 파트너인 스카이랩스(고혈압 측정 표준장비 대비 동등성 및 비열등성 입증 데이터 확보, 2026년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 편입)까지 고려하면, 대웅제약의 파트너 선정 기준은 임상 데이터
- 카테고리 창조자라는 선도자 우위, 임상데이터, 영업력, 플랫폼, 서비스 운용 경험, 그리고 실적까지 어떤 측면에서도 동사와 비교할 만한 기업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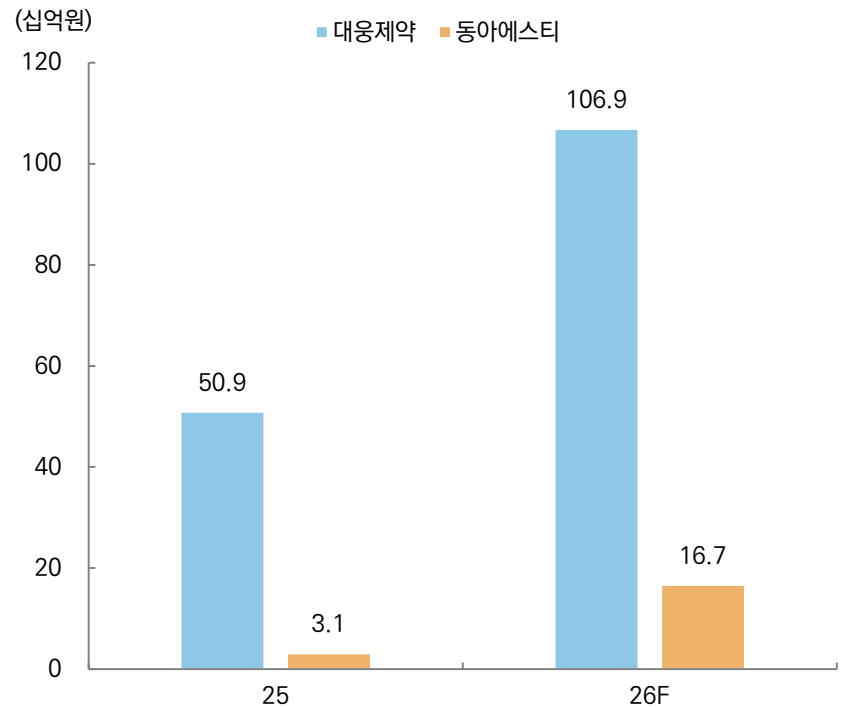
주요 외래환자 심전도 분석기업들의 대표 임상논문 비교

항목	모비케어(씨어스)	썬크(씨어스)
논문	Kwon S, et al.	Kwon S, et al.
게재지	J Med Internet Res (SCIE)	Korean Circ J (SCIE)
게재 시기	2022.5	2024.3
연구 설계	전향적 코호트	전향적 코호트
규모	200명	80명
적용 세팅	외래	입원 병동
비교군	GE Healthcare SEER Light	Philips IntelliVue MX40
모니터링 기간	72시간	입원 기간
핵심 결과	24시간 동등 + 72시간 1.6배 (AF 2.2배)	ICC ≥ 0.9 전 항목, 신호잡음 87.5% 감소
연구 1차 목적	동등성 입증	동등성 입증

항목	AT-Patch(메이타센스)	MEMO Patch(휴이노)	HiCard+(메쥬)
논문	Kwon JS, et al.	Kim YG, et al.	Lee HY, et al.
게재지	J Med Internet Res (SCIE)	JKMS (SCIE)	Bioengineering (SCIE)
게재 시기	2023.9	2025.7	2024.8
연구 설계	다기관 전향 코호트	전향적 다기관	실증 연구
규모	320명	147명	2,000명
적용 세팅	외래	외래·야외	
비교군	-	홀터	-
모니터링 기간	11일	14일	실시간 (등산 중)
핵심 결과	신규 심방세동 감지 3.4%, 고위험군 24.4%	주요 부정맥 75.5% vs 48.3%	2,000명 중 318명 이상신호 감지
연구 1차 목적	신규 심방세동 선별	진단 수율 비교	IoT 시스템 실증

자료: 각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의 디지털헬스 사업부문 매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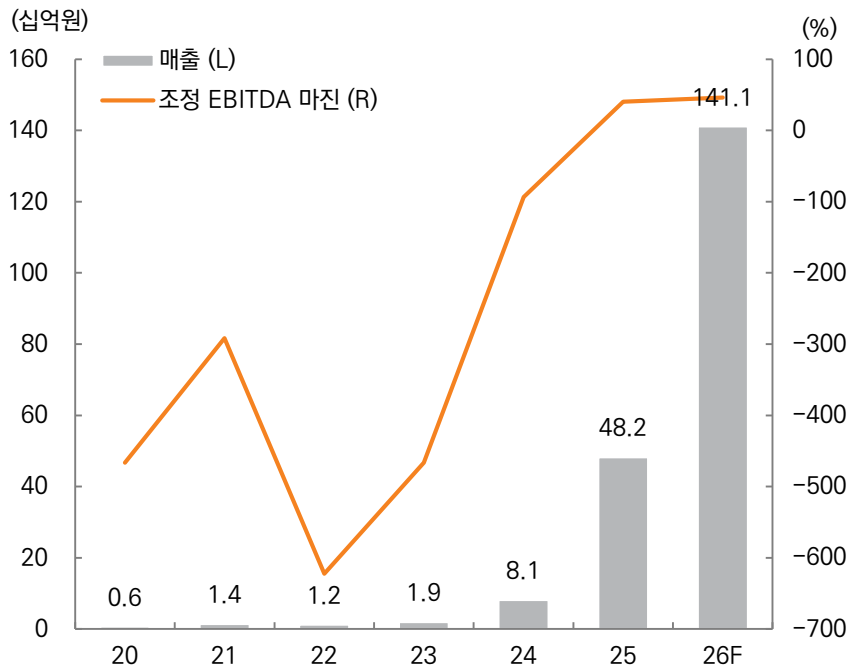
자료: 각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디지털헬스 전망: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② 씨어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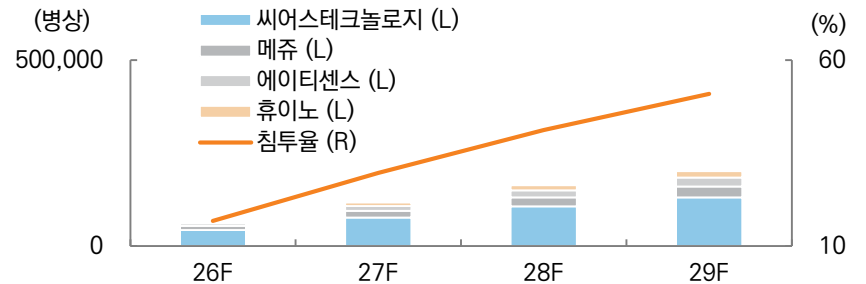
- '26년부터 플랫폼 기능 강화 및 초격차 전략이 가동되며, '28년 이후 국내 싱크에서만 매출 +2,000억원 이상 기대 가능. 시장 내에서 플랫폼으로써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음
- '26년 외부 파트너(기기 및 AI 솔루션) 연동된 싱크 Plus 서비스 개시 → '27년 해외 사업 본격화 및 원격 모니터링(재택 및 병원 간)과 심전도 솔루션 적응증 확장 → '28년 싱크의 재계약 사이클 도래
- '26년 예상 실적: 매출 1,411억원(193% YoY), 영업이익 609억원(263% YoY, OPM 43%)
- 싱크 설치 병상은 3만 개로 가정. 해외 매출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반영(향후 실적 상향조정 요인)
- 하반기 이벤트: FDA 허가, 중동 초도물량 수출 및 서비스 개시, 코스닥 150지수 편입

씨어스의 매출 및 조정 EBITDA 마진 추이



자료: 씨어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장 침투율 확대되는 가운데, 플랫폼으로 진화 중



자료: 씨어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디지털헬스 전망: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② 씨어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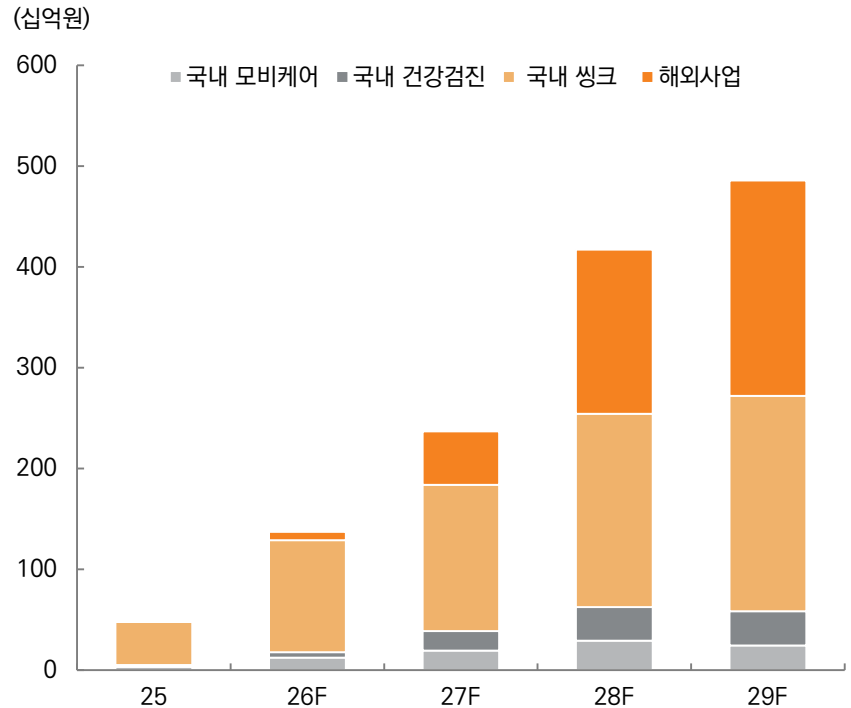
- 해외 사업 성과는 영업 및 보험 전략이 핵심. 중동 파트너는 중동 최대 헬스케어 플랫폼인 Pure Health로 지난 5월 초 3년간 약 220억원의 모비케어 유통계약 체결. '26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시작될 예정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건강검진과 씹크에 대한 본계약도 진행될 예정
- 미국 FDA 허가도 하반기 예상되며, 실질적인 미국 시장진입 시점은 2Q27~3Q27 전망
- 해외사업 성과는 추가 실적개선 요소임과 동시에 리레이팅 요소
- 현주가(25.5.29기준)는 12개월 선행 P/E 18배로 지난 1년 평균(21배) 대비 저평가

중동 파트너인 One Health와 유통계약 체결



자료: 씨어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씨어스의 Vision 2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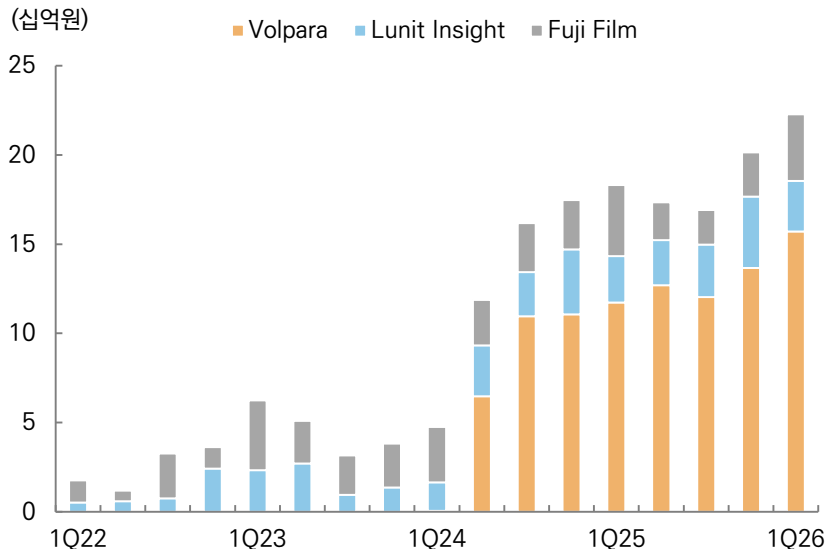
자료: 씨어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디지털헬스 전망: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③ 루닛: 더 강해져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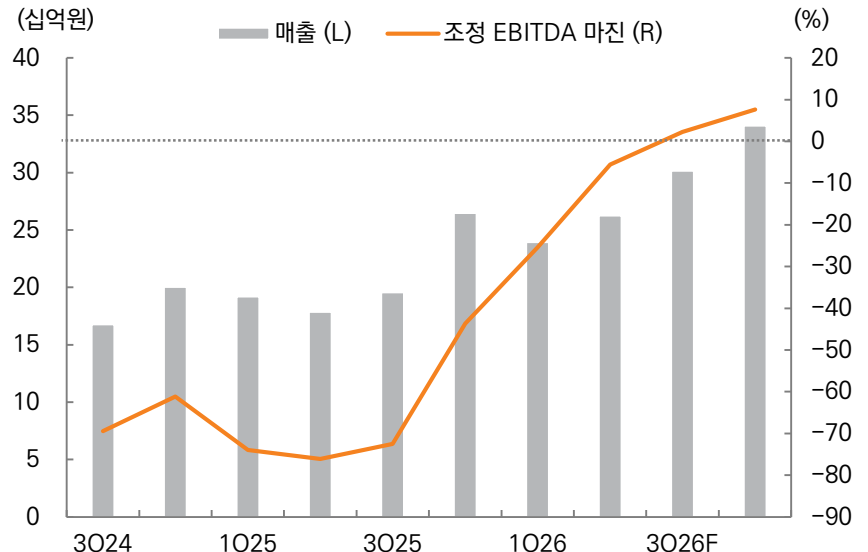
- Cancer Screening 사업: '24년 5월 인수한 알토라 같은 볼파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Lunit Insight도 볼파라 품 안에서 미국 시장에 연착륙(390사이트에서 약 100만 건 계약)하고 있음. 최근 NCCN 가이드라인 개정(유방암 위험도평가 중요도 상승)으로 볼파라와 루닛 인사이트 시너지 기대
- Oncology 사업: 임상시험 및 동반진단 개발 단계에 진입한 파트너사도 2곳. 디지털병리 스캐너 기업 라이카와 PD-L1 분석 솔루션 출시. 최근 PathAI가 Roche와 최대 10.5억달러에 인수 계약을 체결 → 동사 사업부 가치 산정에 참고 가능
- 유상증자로 현금성자산 약 2,115억원 유입되며 부채비율 200% → 60% 중반 개선
- 구조조정 포함 연간 현금성 비용 1,200억원 이하로 관리될 예정. 이에 따라 하반기 조정 EBITDA 흑자전환 가능해 보이며, 외형 성장에 따라 연간 흑자전환도 기대해볼만
- 현 주가('25.5.29)는 12개월 선행 P/S 10배로 상장 이후 평균(21배) 및 지난 1년 평균(11배) 대비 저평가

Cancer Screening 사업부문 매출 추이



자료: 루닛,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매출 및 조정 EBITDA 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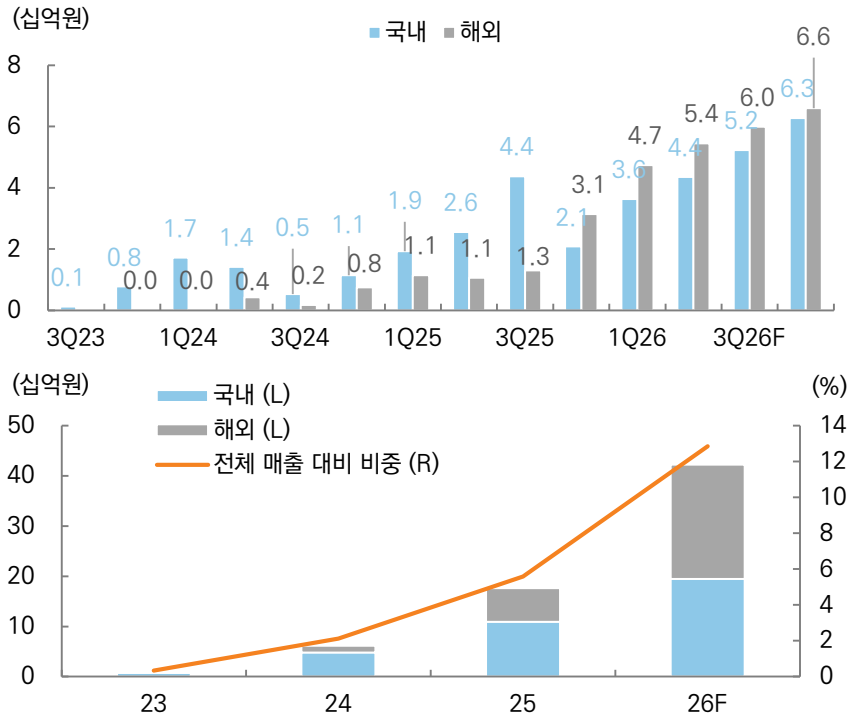
자료: 루닛,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디지털헬스 전망: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④ 아이센스, 순항 중인 CGM 사업과 '27년부터 시작될 글로벌 PL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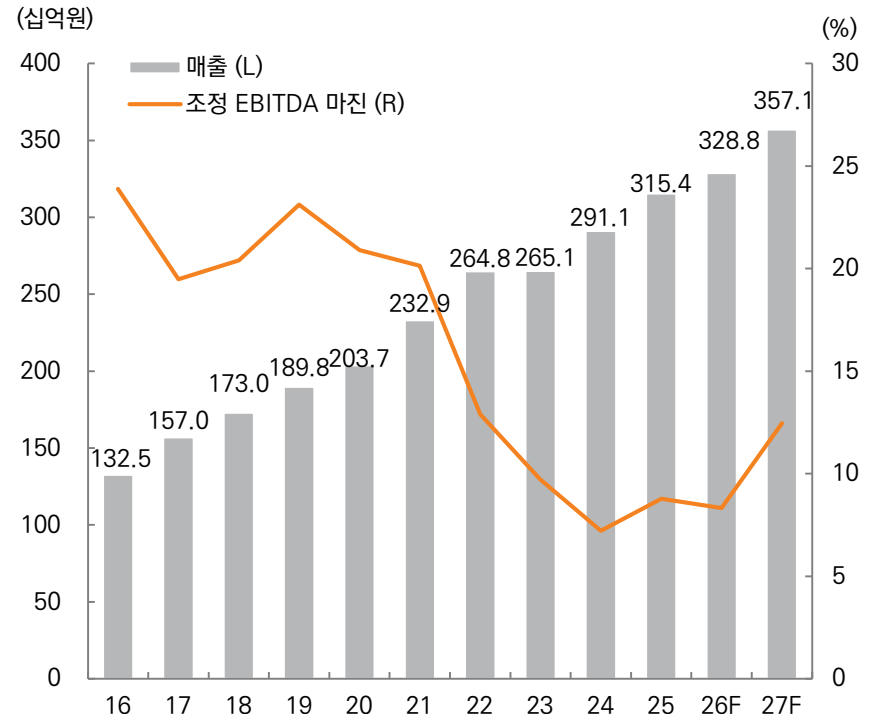
- 2026년 CGM 매출 423억원(140% YoY, 매출 비중 13%, 기존 395억원) → GPM +40% 개선
-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당뇨관리 업체인 라이프스캔과 '31.2월까지 Private Label 계약 체결. 유럽 8개국 대상으로 '27년부터 매출 발생 예상
- '26년 예상 실적: 매출 3,288억원(4% YoY), 조정 EBITDA 274억원(마진 8.3%) 예상. 올해부터 차세대 CGM 임상시험 및 미국 시장 진입비용 150억원 발생으로 마진 훼손은 불가피
- '26년 8월 말까지 약 190억원(전환가액 약 1.6만원)의 전환사채 전환청구가 가능하여 단기 오버행리스크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CGM 사업



자료: 아이센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아이센스 매출 및 조정 EBITDA 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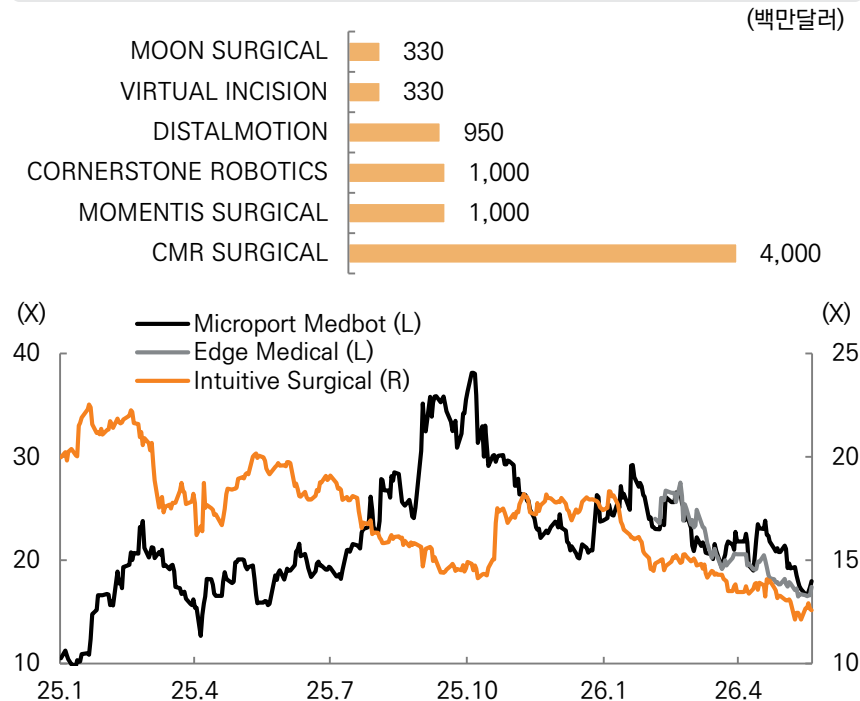
자료: 아이센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디지털헬스 전망: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⑤ 리브스메드: 아쉬운 실적 vs. 수술로봇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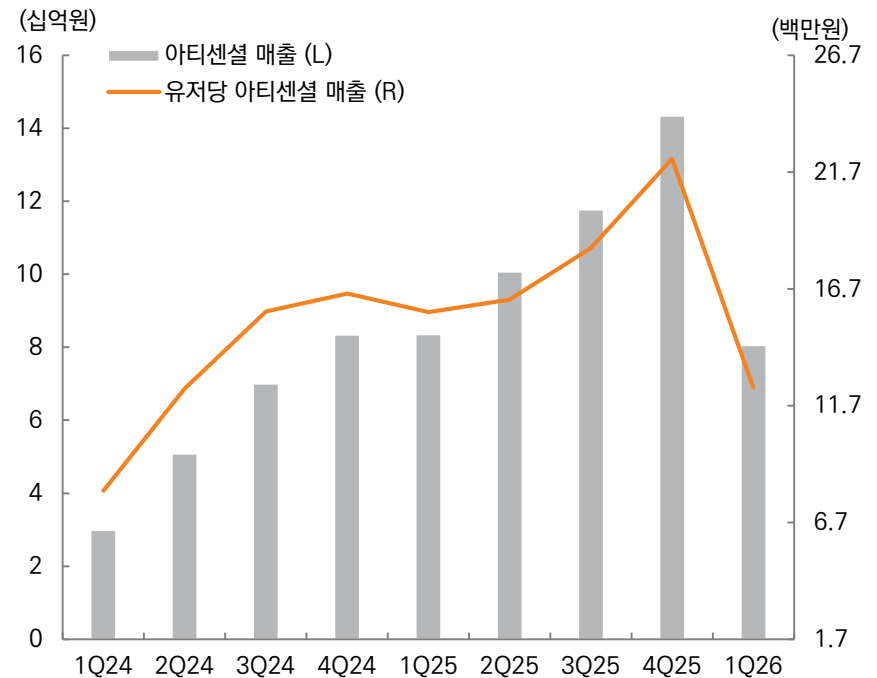
- 차별화된 90도 다관절 기술을 바탕으로 복강경 수술도구에서 복강경 수술로봇까지 확장하려는 전략
- 현재 실적은 100% 복강경 수술도구에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가치에는 수술로봇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FDA 허가를 받은 글로벌 복강경수술로봇 기업들은 3억~4조달러에 기업가치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
- 다만, 복강경수술로봇 시장이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90도 다관절 기술을 모태로 하는 수술도구 사업부 실적은 향후 로봇사업 상용화 시 핵심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찰이 필요.
- 밸류에이션('26.5.19): 12개월 선행 P/S 16배(상장 이후 평균 19배) vs. 글로벌 Peer 17배

복강경수술로봇 상장사 12개월 선행 P/S 및 비상장사 기업가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아티센셜 매출 vs. 유저당 아티센셜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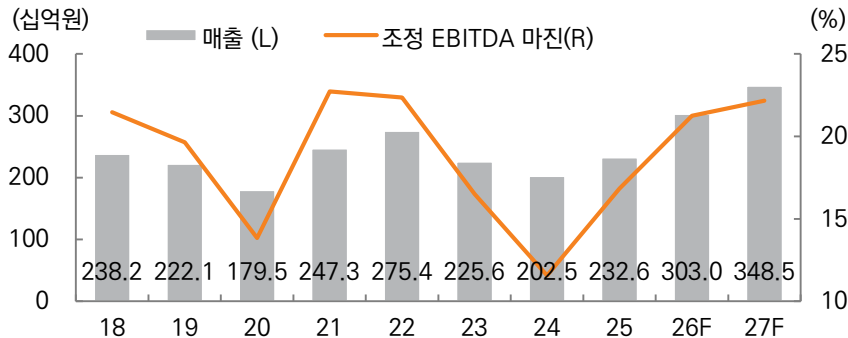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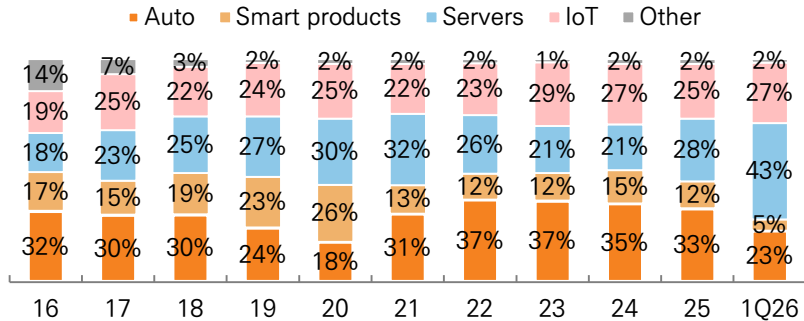
자료: 리브스메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디지털헬스 전망: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⑤ 고영, AI가 AI 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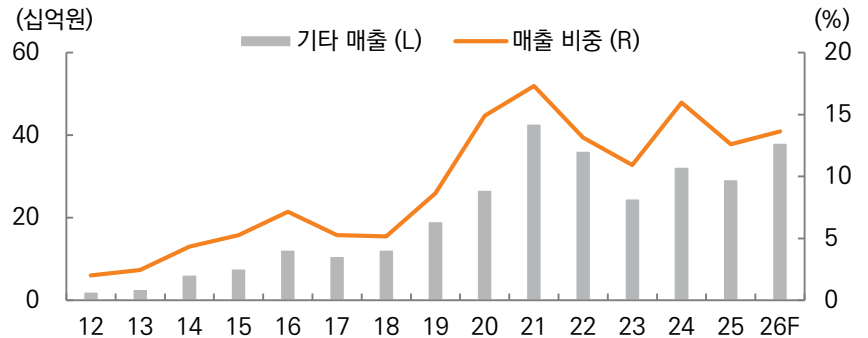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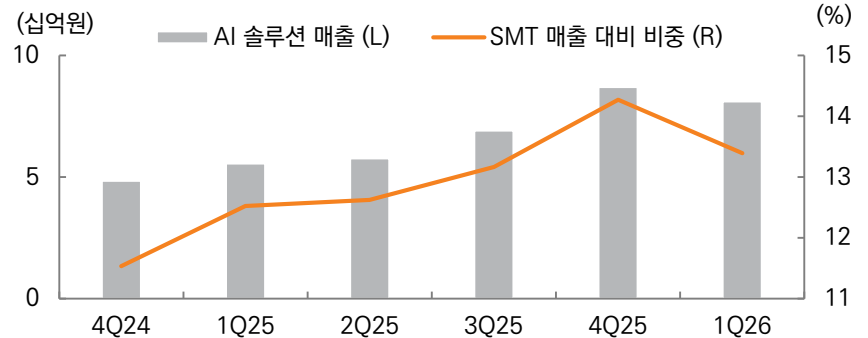
- AI 고객사가 서버와 광 모듈에 투자하면서 수혜를 받는 중
- AI 솔루션 매출도 SMT 매출의 13%까지 성장
- '26년 매출 3,030억원(30% YoY), 조정 EBITDA 644억원(65% YoY, 마진 21.3%) 예상
- 뇌정위수술로봇은 올해 목표는 20대 출고이나 매출인식 시기 미정
- 12개월 선행 EV/EBITDA 34배(글로벌 Peer 24배), P/E 55배(글로벌 Peer 32배) 대비 프리미엄 받고 있음 ('26년 5월 27일 기준)

고영 실품목별 매출 비중 및 실적 추이



자료: 고영,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고영의 신사업 관련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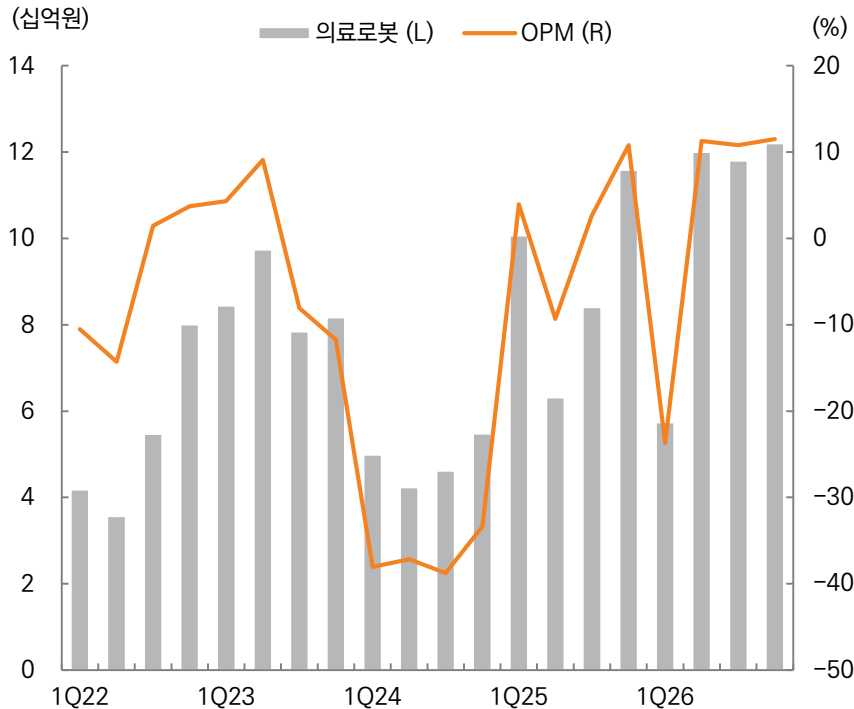
자료: 고영,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디지털헬스 전망: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찾기

⑤ 큐렉소, 글로벌 확장과 더불어 이익까지 나는 수술로봇 기업

- 인도시장의 높은 의존도를 갖춘 수출 구조가 '25년을 기점으로 다각화되고 있음
- '26년 신규 인허가: 베트남(1월), 유럽 MDR(3월), 미국 FDA(4월)
- '26년 신규 계약: 시지바이오(국내 척추로봇), 오쏘하우스(이집트 관절로봇), 퍼메디카(이탈리아 관절로봇), Biorad Medisys(인도 관절로봇)
- 의료로봇 예상 실적: 417억원(15% YoY), 영업이익 27억원(108% YoY, OPM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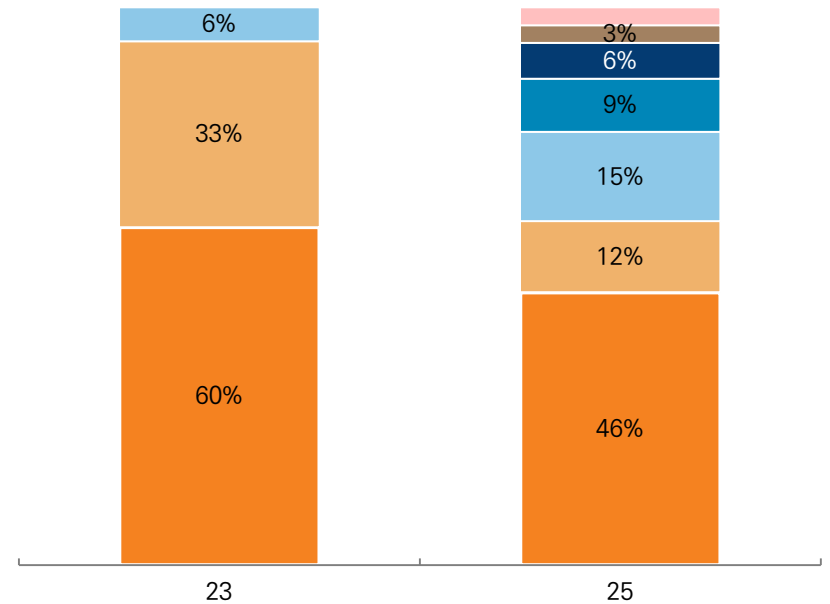
큐렉소 의료로봇 사업부문 실적 추이



자료: 큐렉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의료로봇 지역별 출고 비중 변화

인도 한국 러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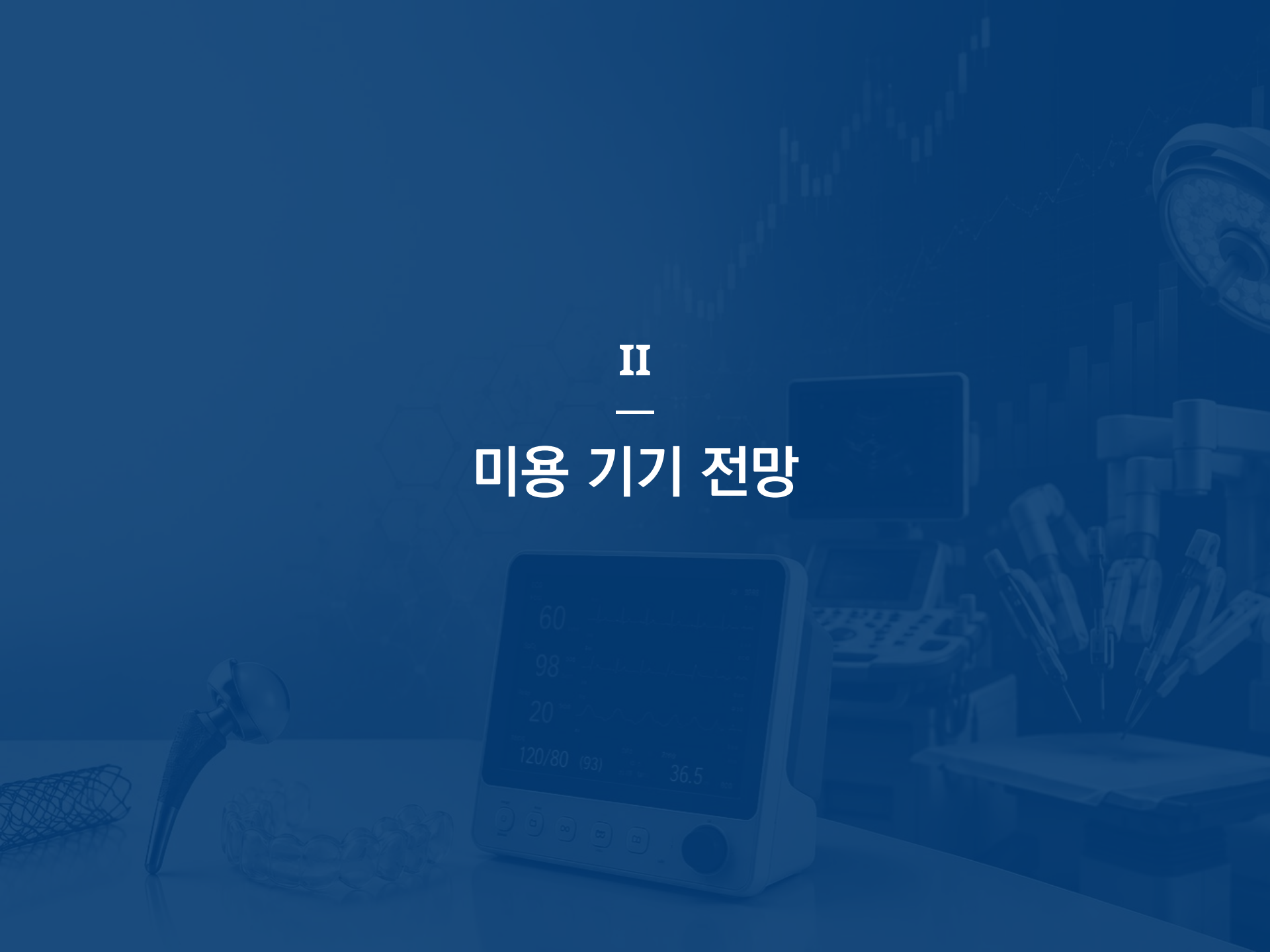


자료: 큐렉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

미용 기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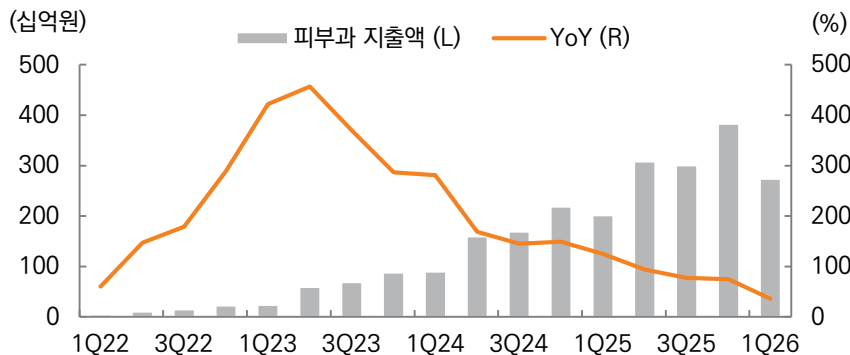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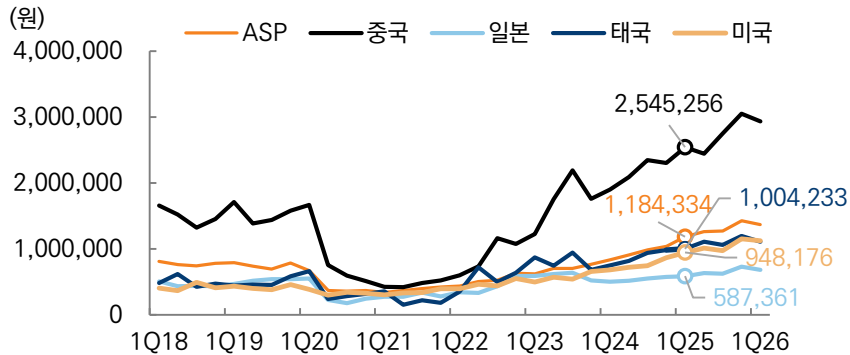


II. 미용기기 전망: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면?

의심의 여지없는 성장 산업,
의료관광 주도의 내수
성장과 지역 확장에 의한
견조한 수출의 쌍끌이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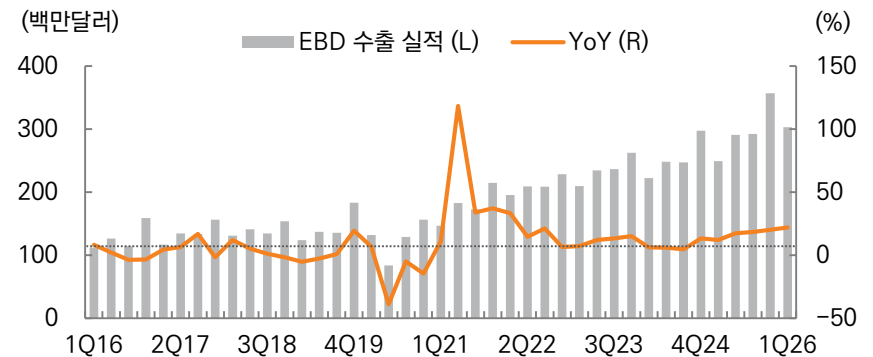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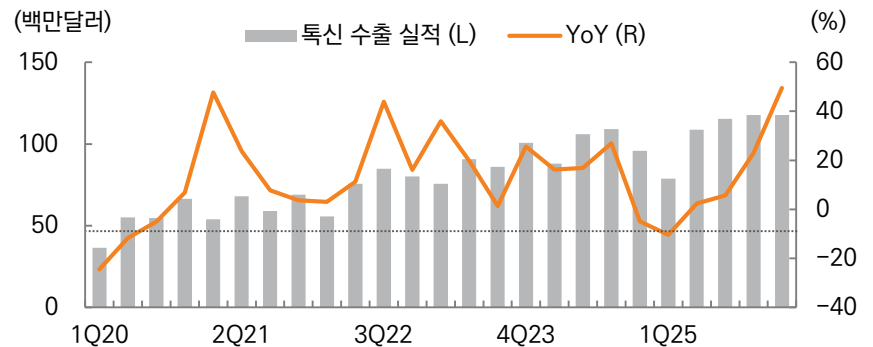
- 견조한 의료 관광객의 피부과 지출. 물론 24년~25년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보다는 상승 강도는 줄어들겠지만, 절대 소비액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중요함
- 외국인 1인당 소비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 통상 피부과 시술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합 시술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수출 측면에서도 주사 요법과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모두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음

의료관광객 피부과 지출액 및 ASP 추이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특신과 EBD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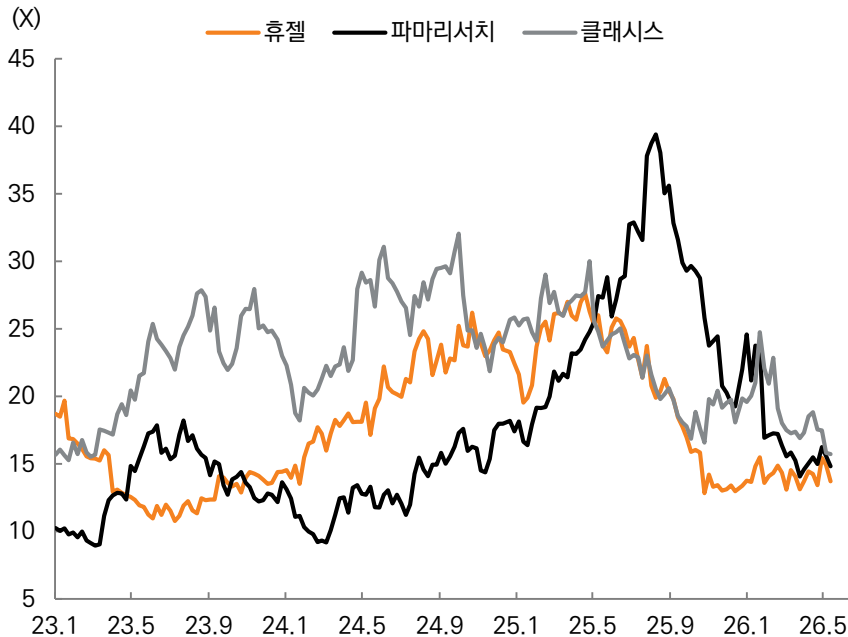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미용기기 전망: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면?

미용기기 섹터도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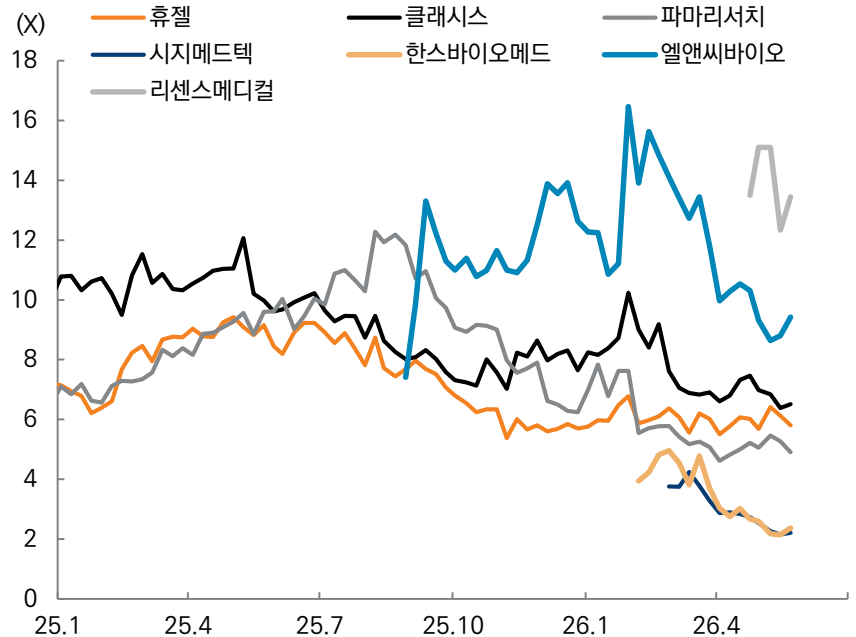
- 타 섹터로의 수급 쏠림 현상 심화와 섹터 내 경쟁 심화 우려로 미용기기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이 15배 수준으로 하락 → 이런 상황에서 신생 미용 기술 관련 기업이 좀 더 주목받고 있는데, 관점을 바꿔보면 다양한 시술법이 등장할 정도로 시장의 토양이 성숙되었다는 반증
- 시장이 성장할수록 화장품 섹터는 많은 참고가 될 것 → 앞으로 미용기기 관련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이미 자리를 잡은 대형주와 신생기업을 각기 다른 관점으로 봐야
- 대형주 관점: 가시적인 지역적 확장 및 품목 확장 전략 제시 필요
- 신생기업: 국내시장에서 성과가 중요. 새로운 개념일수록 프리미엄 요소 → 단, 밸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미용기기 상위기업 12개월 선행 P/E 추이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용기기 대형 기업 vs. 신생 기업의 12개월 선행 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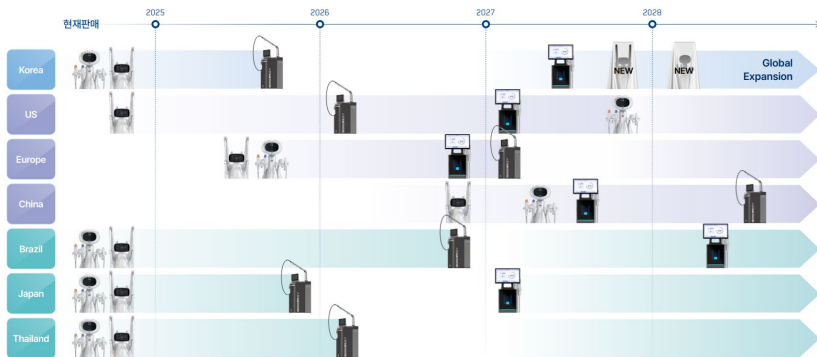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미용기기 전망: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면?

'30년경 매출 1조원대
목표로 3인 3색 확장 전략
진행 중.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기 위해
가장 좋은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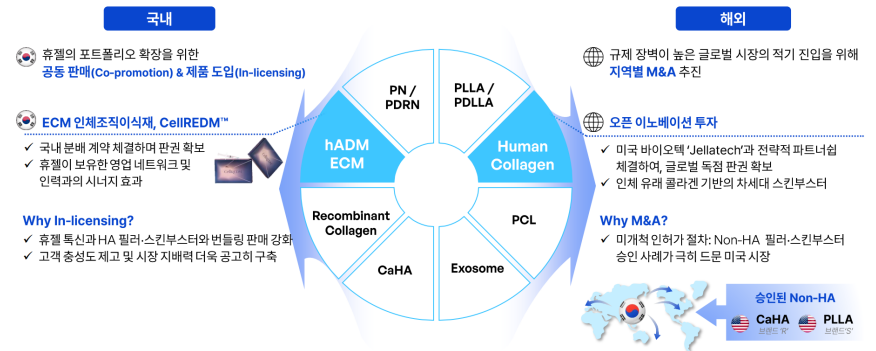
- 미용기기 대형주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대표 기업들. 지역적/품목적 다각화 전략으로 단일 품목, 단일 지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K-Beauty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실적 기반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상위 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것
- 대부분 '30년경 매출 1조 원대 목표. → 구조적 성장이 끝났다는 것은 기우.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기 위해 가장 좋은 대안
- 클래스시스: 이루다(수평적 M&A)와 JL헬스(수직적 M&A)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와 지역 확장을 동시에 추진. 신규 M&A 가능성 높음
- 휴젤: 국내는 다른 기업과의 제휴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하며, 미국에서 직판 강화
- 파마리서치: 유통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확장과 M&A를 통한 품목 다각화. 신규 M&A 가능성 높음

클래스시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자료: 클래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휴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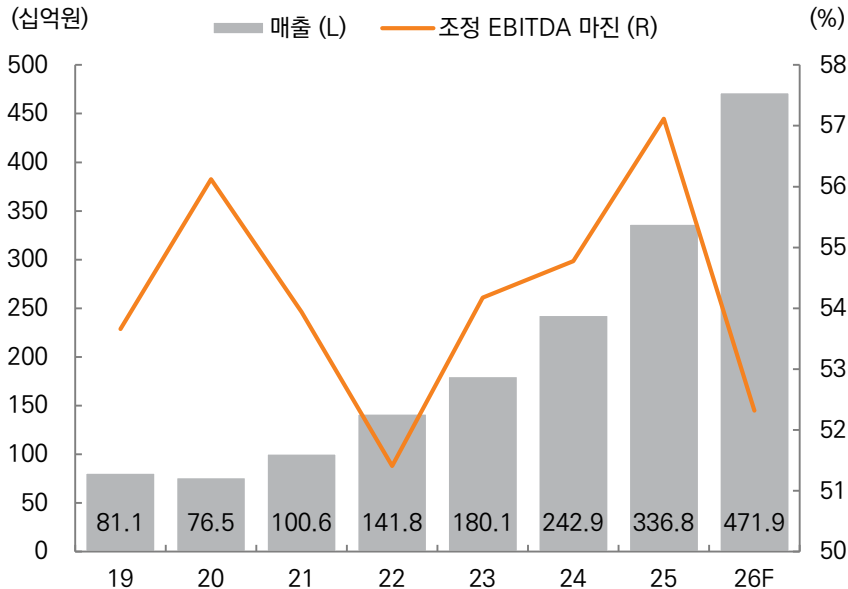
자료: 휴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미용기기 전망: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면?

① 클래시스, 어렵지만 가장 정석적인 글로벌 성장공식 수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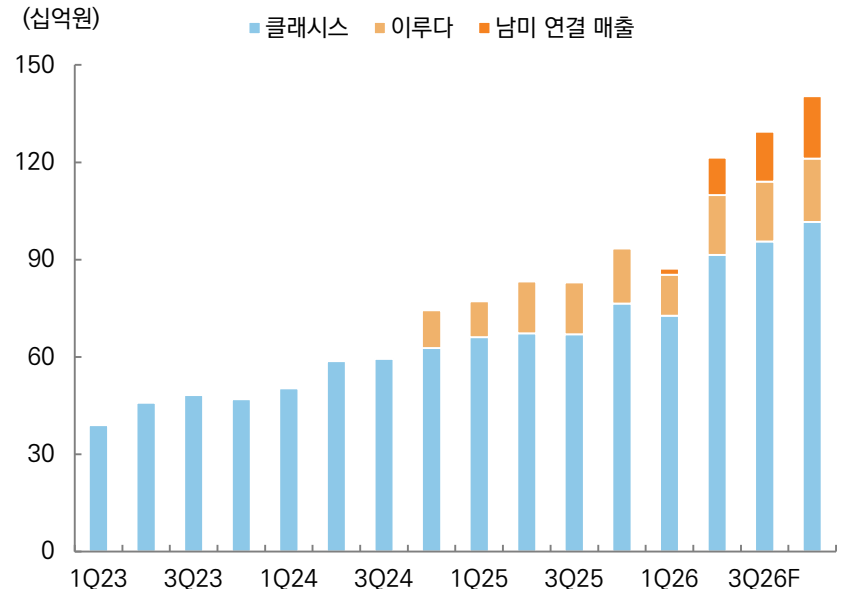
- 브라질: 1Q26 3월부터 연결. 차입금 600억원/매출채권 600억원/재고자산 290억원 증가. 2Q26 부터 마진 및 외형성장 회복 기대되며, PMI와 더불어 본사 금융기법으로 재무구조 건전화 정책 예정
- '25년 유럽(볼뉴머, 슈링크 유니버스), '26년 퀴드세이(미국, 브라질, 태국), 볼뉴머(중국), 아큐아퓨어(유럽)의 신제품 효과 기대. '27년 슈링크 유니버스(미국 및 중국), 퀴드세이(유럽 및 브라질). '28년 2세대 볼뉴머(한국) 출시 예정
- 동사는 1Q26 기준 글로벌 전역에 총 4.6만 대를 설치한 글로벌 1위 미용기기 기업. 브라질 유통사 PMI까지 성공한다면 동사는 제조사, 유통사, 크로스보더 M&A 성공 경험을 가진 유일한 국내 미용기기 기업이 될 것
- 2026년 4,784억원(42% YoY), 조정 EBITDA 2,413억원(29% YoY, 마진 50.4%) 예상

클래시스의 실적 추정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클래시스의 예상 M&A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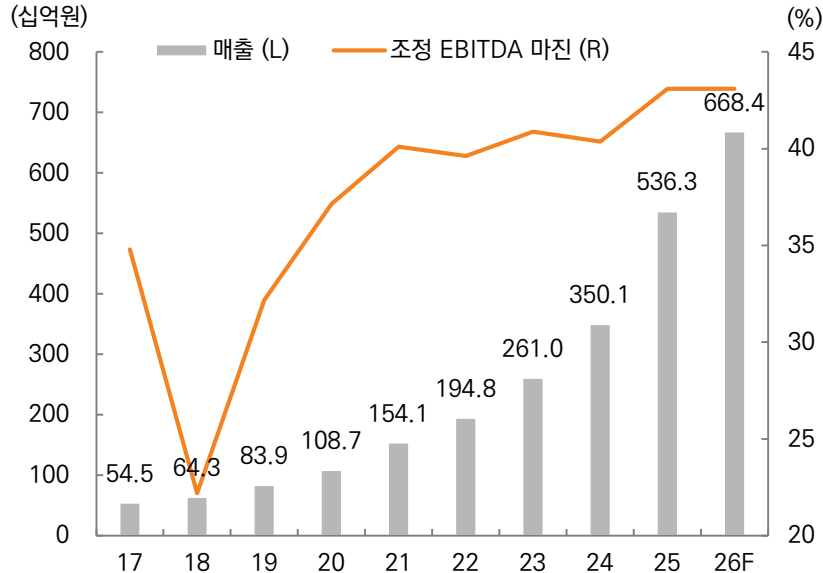
자료: 클래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미용기기 전망: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면?

② 파마리서치, 리쥬란은 리쥬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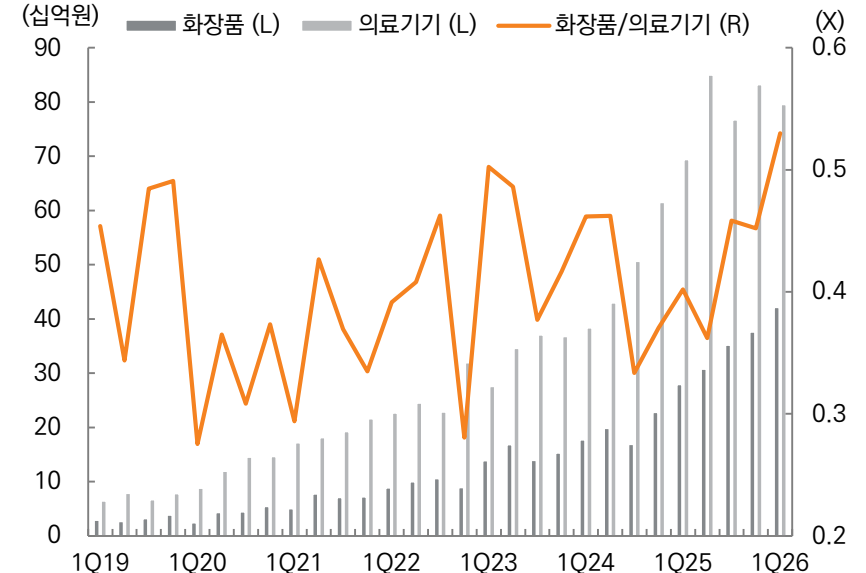
- 리쥬란: ECM 스킨부스터 간 경쟁 심화로 시술당 수익성이 훼손되면서 오히려 리쥬란의 수익성이 강화되는 상황이 진행 중. 해외 수출은 중동 전쟁 감안 시 선방 중.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서유럽은 초도 물량 출고 이후 추가 주문 이어지는 상태. 고객 피드백은 우수한 편으로 알려짐. 서유럽 매출 확대는 중요한 리레이팅 요소 중 하나
- 화장품: 자체 브랜드 파워가 구축되면서, 리쥬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 중
- 신성장 동력: 4Q26 미용기기 출시, 4Q26~1H27 합성 콜라겐 출시, 2H27 특신 캐파 증설, '27~'28년 차세대 리쥬란 출시, M&A(시점 미정)
- '26년 예상 실적: 매출 6,684억원(25% YoY), 조정 EBITDA 2,880억원(25% YoY, 마진 43.1%)

파마리서치의 실적 추이



자료: 파마리서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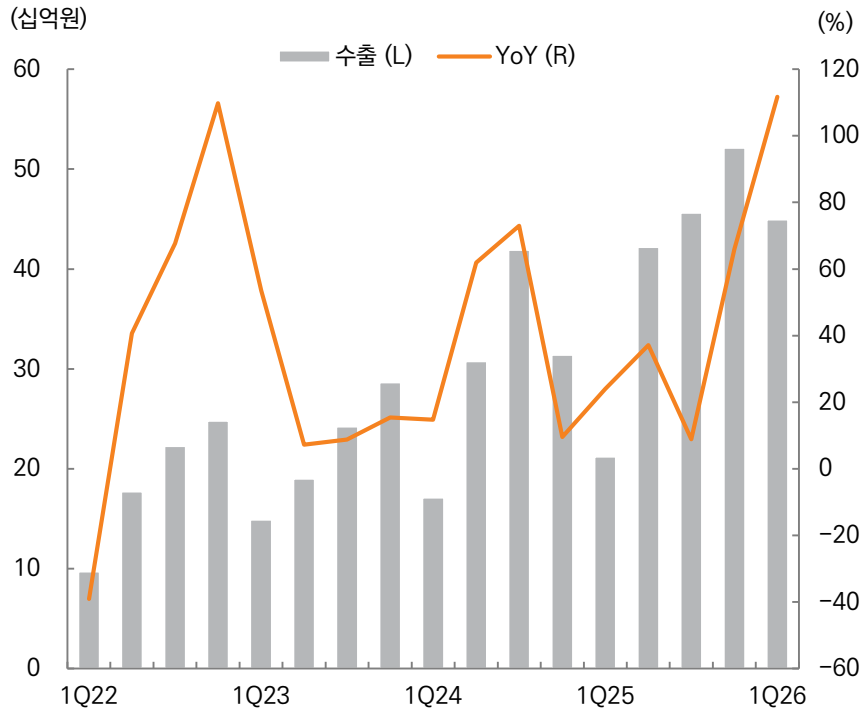
자료: 파마리서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미용기기 전망: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면?

③ 휴젤, 국내는 파트너십을 통한 제품 다각화 전략하며, 미국은 직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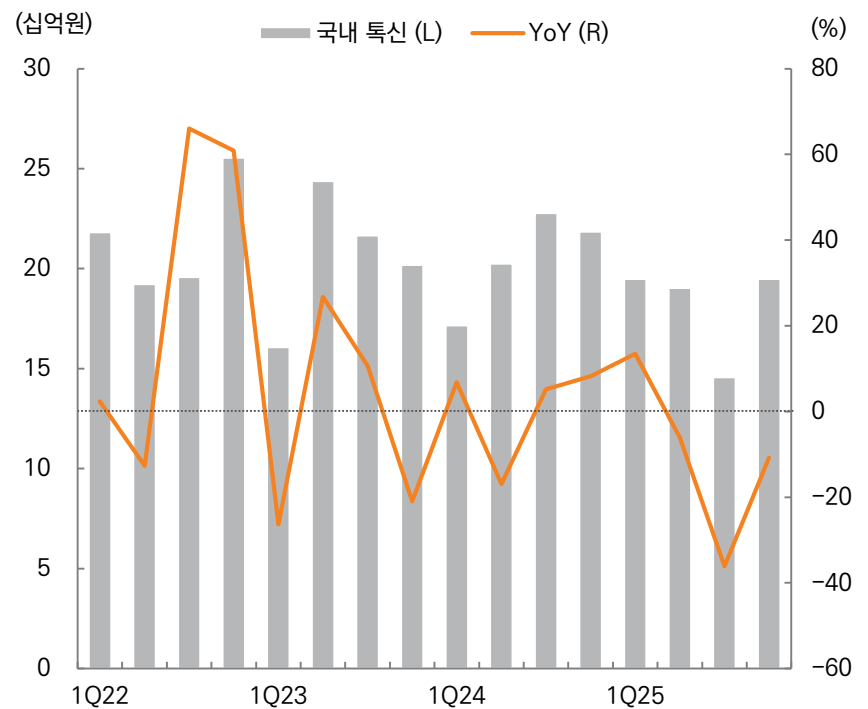
- 국내 사업: 특신 사업의 변동성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파트너십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개시. 한스바이오메드의 ECM 스킨부스터(셀르디엠) 국내 독점 유통권 취득. 향후 특신 및 필러와 복합 시술로 궁합이 좋은 제품과 추가 유통 계약 예상 또한, jellatech와 Human Collagen 제품 개발 개시
- 해외 수출: 미국 시장 직접 판매 역량 강화 예정. 미국 사업 경영진 채용 완료. 2Q26부터 영업 인력 채용 본격화될 것

건조한 특신 수출 실적



자료: 휴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안정화되고 있는 국내 특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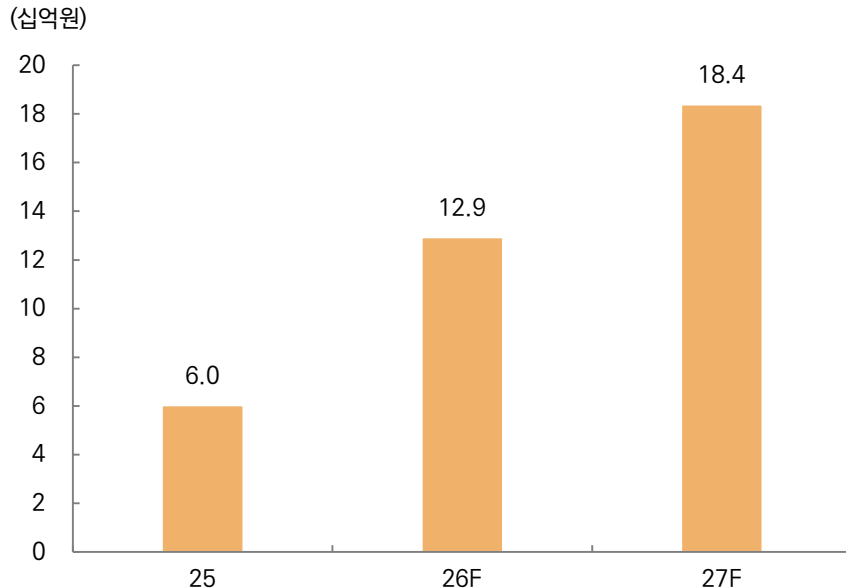
자료: 휴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미용기기 전망: 코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면?

④ 리센스메디컬, K-미용기기의 새로운 도파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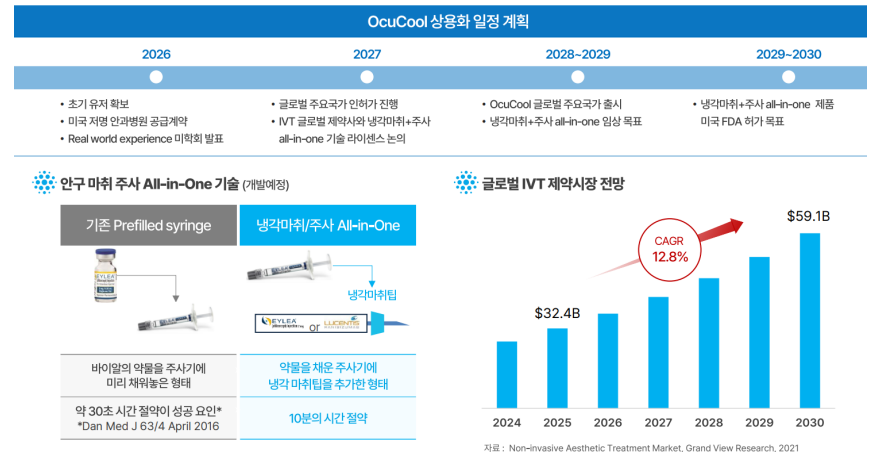
- Target Cool: 급속 정밀 냉각기술을 활용한 피부미용 마취기로 안 아프고 다운 타임이 없다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 임상 현장에서 스킨부스터/EBD와 패키지로 시술되고 있음. 써마지와 글로벌 시술 프로토콜 협업 중
- OcuCool: FDA(De Novo) 승인된 안구질환용 마취기로 기존 마취제가 마취 발현이 5~10분 걸리는데 비해 즉각 마취로 시술 시간 2분 내로 단축 가능. '29~'30년 약물과 마취가 한 번에 가능한 올인원 기기 FDA 허가 목표. '27년 목표로 기술이전 추진 중
- 미용 시술용 마취기가 cash cow 역할을 해주면서 향후 약물 전달 기술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음

리센스메디컬 TargetCool 가이던스



자료: 리센스메디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OcuCool 상용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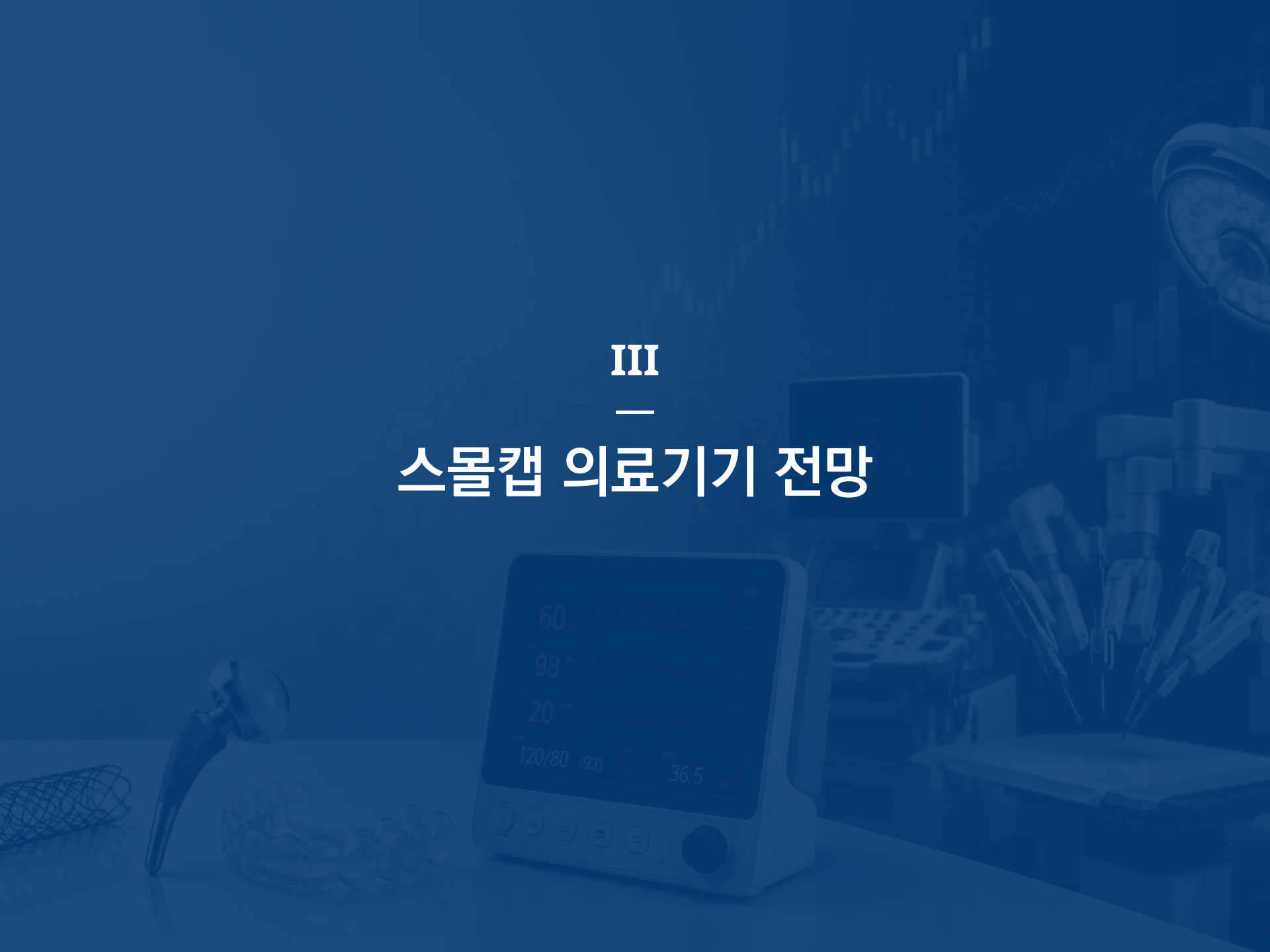


자료: 리센스메디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I

—

스몰캡 의료기기 전망



III. 스몰캡 아이디어

① 큐리오시스, 글로벌 ODM 추가 계약 모멘텀은 시작도 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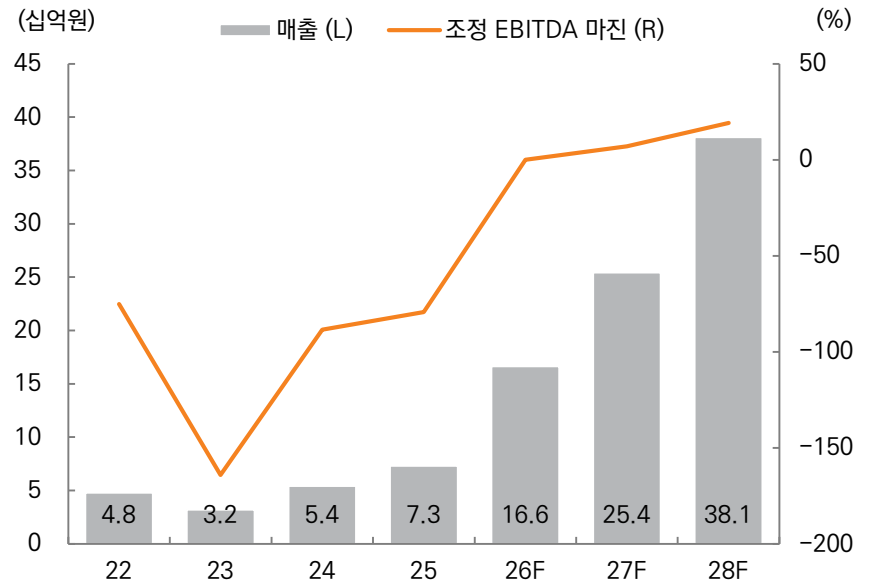
- Revvity ODM: 라이브셀 이미징 장비 계약기간을 1Q29로 연장하고, 최소 주문 금액을 110억원 (기존 80억원)으로 증액. 최소주문 주기도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하여 실적 가시성도 높아짐. 현재 Revvity 공급 제품은 3개이며 기술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 추가 ODM 계약 가능성 충분.
- 추가 ODM: M사, L사, T사 등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과 논의 진행 중. 상반기 내 추가 ODM계약 발표 가능성 높아 보임.
- 세포 치료제: 메디포스트의 품질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최적화 MOU 체결로 세포치료제 시장 확장 선언. 메디포스트를 기점으로 세포치료제 영역에서의 파트너십 기회도 늘어날 것.
- '26년 예상 실적: 매출 160억원(128% YoY), 영업적자 7억원(적자지속)

7대 핵심기술로 완성된 제조플랫폼 CurioSystem



자료: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큐리오시스의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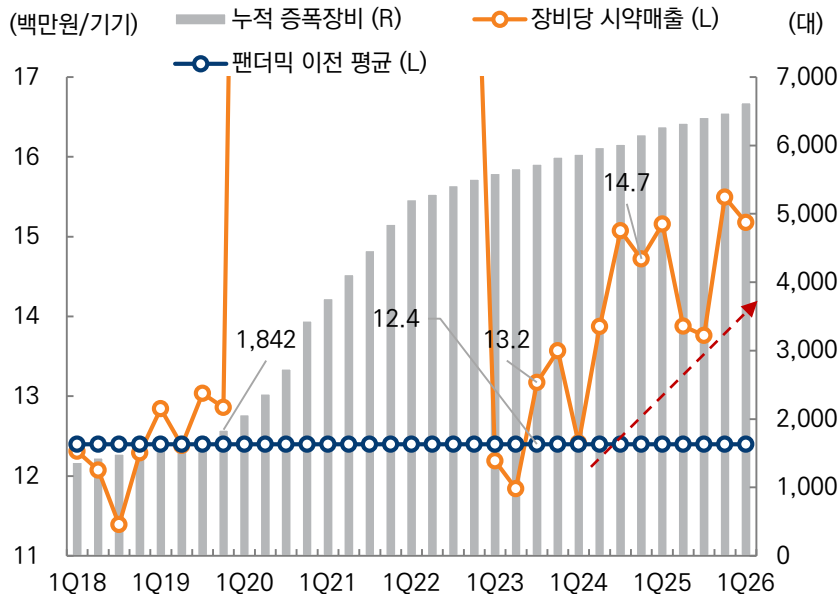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I. 스몰캡 아이디어

② 씨젠, 4년 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로 돌아갈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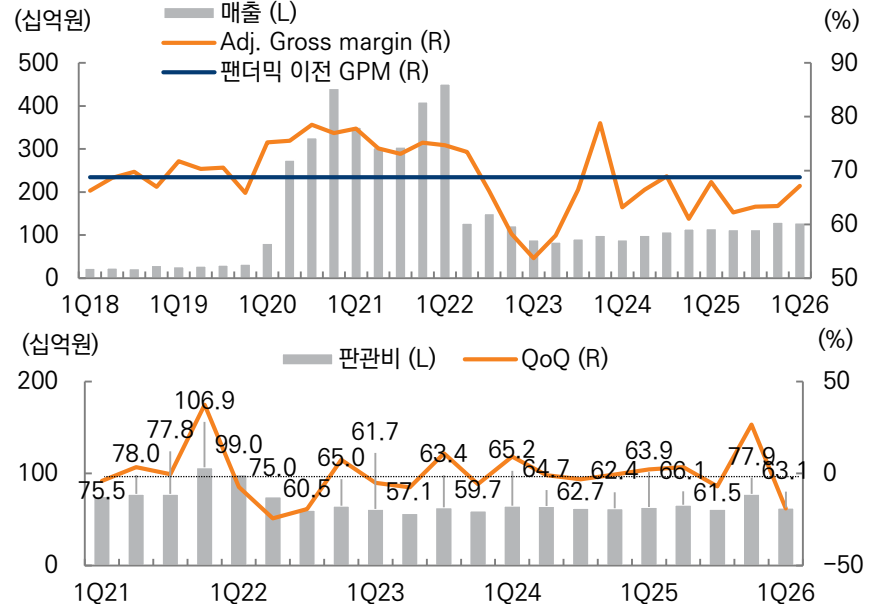
- 글로벌 전역의 6,600대 이상의 증폭장비로부터 장비당 시약매출 15.2백만원 (팬더믹 이전 평균 12.4백만원)에 달함. 배양법을 대체하며 고성장중인 소화기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는 HPV 제품이 외형성장 주도. 8분기 연속 분기 매출 1,000억원 이상 달성
- 마진: '26년 GPM 65.4%(팬더믹 이전 평균 약 68%) 예상. 판관비의 핵심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프로젝트 효율화와 전사 인력 1,100명대 유지 중
- 신성장동력 및 기타: 2H26 Nature와 협업 진단키트 MDRO(다제내성균 검사), '27년 CURECA(PCR 자동화 시스템) 및 STAgora(PCR 검사결과 통계 플랫폼) 출시 예정
- '26년 예상 실적: 매출 5,178억원(9% YoY), 조정 EBITDA 1,441억원(39% YoY, 마진 27.8%), 영업이익 755억원(119% YoY, 마진 14.6%) . 소각 가능 자사주 11.7%, 분기 배당 300원 증액

씨젠 진단기기당 진단 키트 매출 추이



자료: 씨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씨젠 GPM 및 판관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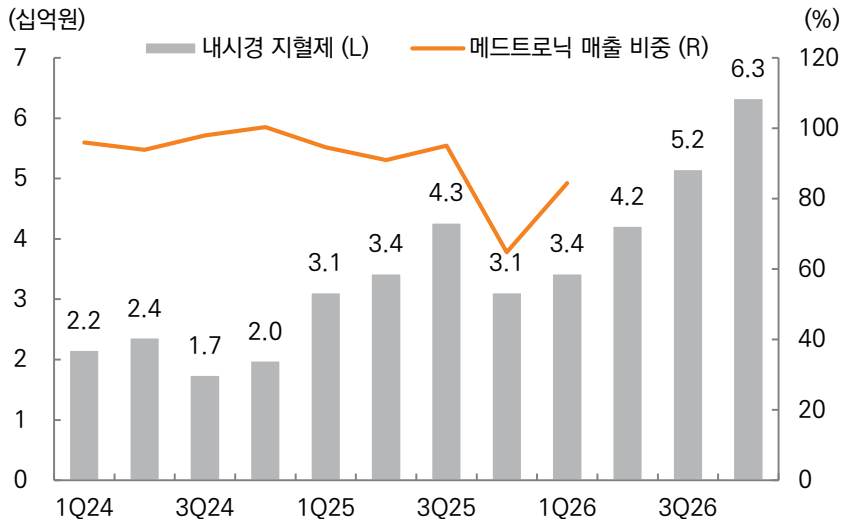
자료: 씨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I. 스몰캡 아이디어

③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정상화된 넥스파우더 영업 + 넥스피어F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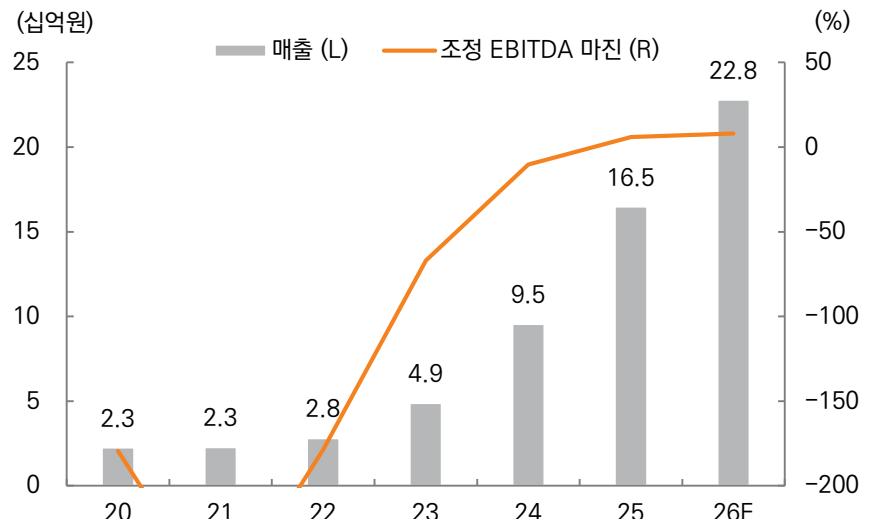
- 넥스파우더(파우더형 위장관 지혈제 및 출혈 예방제): TAM 1~4조원, 메드트로닉과 글로벌 유통 파트너십(한중일 제외). ESG 영향으로 부진했던 유럽 수출 정상화. '27~'28년 1차 치료 보조요법으로 글로벌 진료지침 등재 목표(미국에서 시판 후 임상 진행 중 + GUT 게재). 1차 치료제 제약 성분이 추가된 차세대 넥스트 파우더 개발 예정
- 넥스피어F(속분해성 관절염 통증 색전치료제): '26년 4월 아사히인텍과 일본 유통 독점 계약 체결 (임상시험 후 '28년 시장진입 목표). 26년 6월 테루모와 유럽 일부 지역 유통계약 체결. 향후 미국 파트너 발표 예정. 미국 확증임상(RESORB, 무릎관절염)'27년 완료 → '28년 시장진입 목표. 유럽 시판 후 임상 및 치료 범위 확장용 임상 진행 중. 꾸준한 임상논문 발표로 통증 치료 플랫폼 기대감
- 신규 파이프라인: 고분자 미립구를 활용한 약물전달 시스템 관련 신규 파이프라인 기대감 존재
- '26년 예상 실적: 매출 228억원(53% YoY), 조정 EBITDA 18억원(86% YoY, 마진 8%), 영업적자 29억원.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시험 비용 집행(약 150억원) 본격화

파우더형 위장관 지혈제인 넥스파우더 매출 추이



자료: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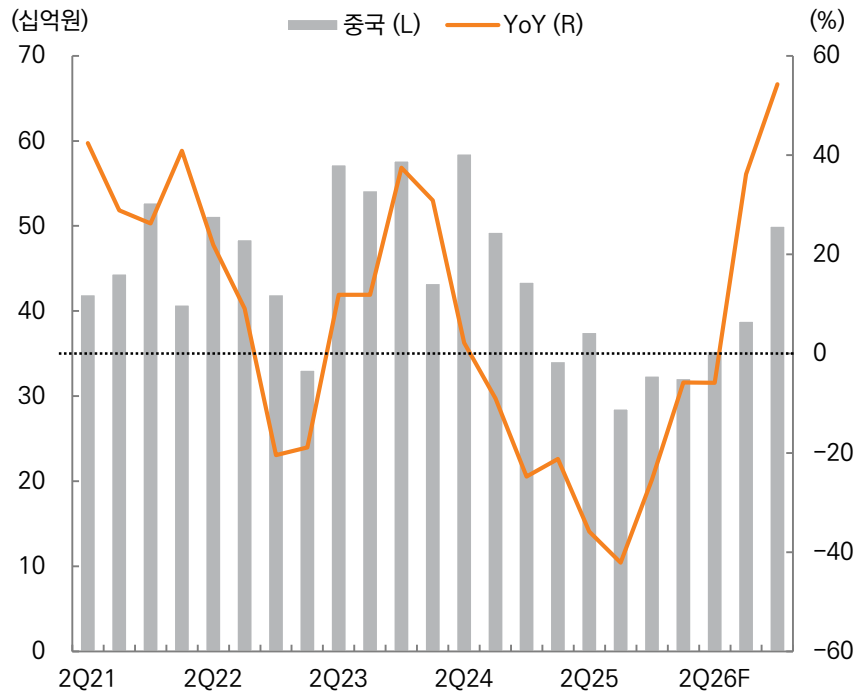
자료: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I. 스몰캡 아이디어

④ 덴티움, 중국 2차 VBP만 시작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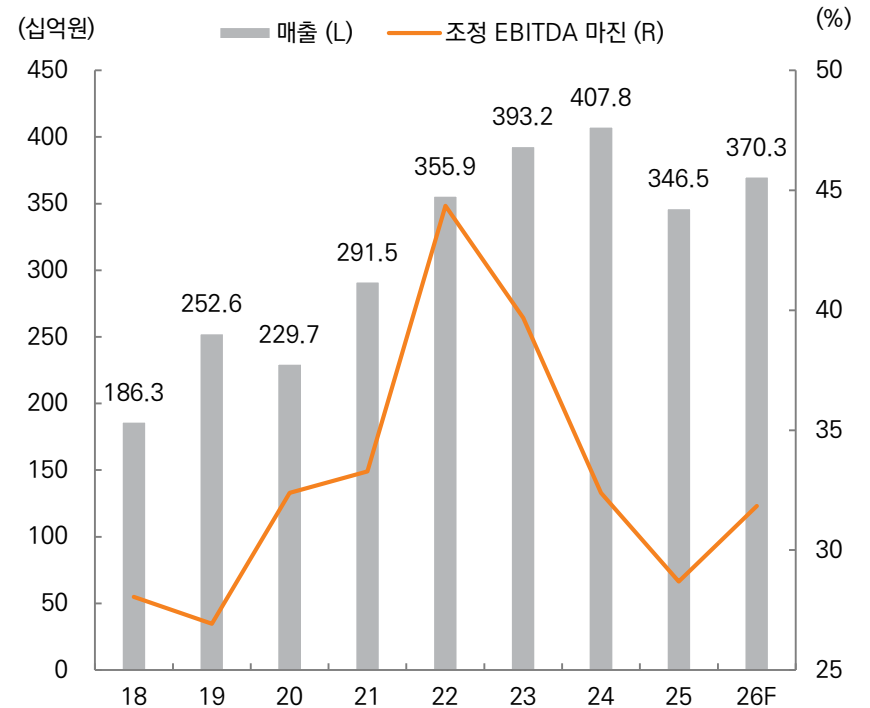
- VBP 시행 일정이 지연되면서 중국에서 6분기 연속 매출 역성장 기록. 이로 인해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12개월 선행 EV/EBITDA 5배 vs. 글로벌 Peer 11배, 26년 5월 27일 기준) 지속 갱신하는 상태.
- 매출성장률 추이가 상승 반전에 했다는 점, VBP 시행이 무한 연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 VBP 시행 시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 될 수 있음.
- 2026년 예상 실적: 매출 3,703억원(7% YoY), 조정 EBITDA 1,179억원(19% YoY, 마진 31.8%)

덴티움 중국 매출 추이



자료: 덴티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매출 및 조정 EBITDA 마진 추이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ANY

—

종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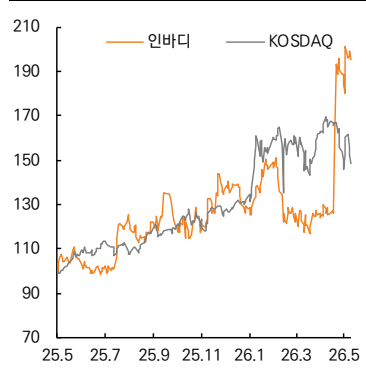
미국 비만 관리시장, 흥분해도 좋다!

투자이건(유지)	매수
목표주가(유지)	74,000원
현재주가(26/5/29)	45,850원
상승여력	61.4%

영업이익(26F, 십억원)	52
Consensus 영업이익(26F, 십억원)	48
EPS 성장률(26F, %)	54.7
MKT EPS 성장률(26F, %)	239.0
P/E(26F, x)	13.1
MKT P/E(26F, x)	9.2
KOSDAQ	1,074.80
시가총액(십억원)	618
발행주식수(백만주)	13
유동주식비율(%)	69.9
외국인 보유비중(%)	37.8
베타(12M) 일간수익률	0.46
52주 최저가(원)	23,200
52주 최고가(원)	47,350
(%)	1M 6M 12M
절대주가	51.6 47.2 86.8
상대주가	72.1 25.0 27.9

투자포인트

- 위고비가 상용화된 '23년을 기점으로 병원은 미국 내 최대 고객으로 부상. 최근 비만 치료의 트렌드로 '근육량 감소 최소화'가 부각되면서 비만 관리 시장을 만들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음.
- 미국 내 약 2.3만개의 비만 클리닉 및 MedSpa 관련 시장 최소 5,300억원 예상. 현재 미국 체성분 분석 시장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규모. 매년 3%씩만 침투해도 연간 약 200억원 매출 기대 → 비만관리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인바디의 미국 매출은 '27년경 +1,100억원 달성 전망.
- 원격의료 플랫폼의 부상이 비만 치료의 지속성을 높이고,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기 위해 오프라인 서비스업체의 체성분 분석기 도입의 촉매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제약사향 매출 증가는 절대 매출 규모보다도 임상 근거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
- 26년 예상 실적: 견조한 미국 성장에 힘입어 매출 2,776억원(19% YoY), 전사적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를 반영해 조정 EBITDA 640억원(33% YoY, 마진 23%)
- 현 주가는 12개월 선행 EV/EBITDA 6.5배(지난 3년 평균 4.6배)로 과거 역사적 고점은 30배 이상
- 리스크: 낮은 실적 추정 가시성, 신규 수요처 발굴 부진



계산기 (12월)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십억원)	204	234	278	329	393
영업이익 (십억원)	37	37	52	63	79
영업이익률 (%)	18.1	15.8	18.7	19.1	20.1
순이익 (십억원)	33	31	47	54	67
EPS (원)	2,422	2,266	3,506	3,982	4,995
ROE (%)	12.7	10.4	14.0	14.1	15.6
P/E (배)	9.6	14.5	13.1	11.5	9.2
P/B (배)	1.1	1.4	1.7	1.5	1.3
배당수익률 (%)	1.7	1.8	1.3	1.3	1.3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인바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34	278	329	393
매출원가	53	69	81	96
매출총이익	181	209	248	297
판매비와관리비	144	157	186	218
조정영업이익	37	52	63	79
영업이익	37	52	63	79
비영업손익	2	7	4	5
금융손익	3	4	4	6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1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39	59	67	84
계속사업법인세비용	9	12	13	17
계속사업이익	30	47	54	67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당기순이익	30	47	54	67
지배주주	31	47	54	67
비지배주주	-1	0	0	0
총포괄이익	31	47	54	67
지배주주	31	48	54	68
비지배주주	-1	0	0	0
EBITDA	45	61	71	86
FCF	29	45	50	61
EBITDA 마진율 (%)	19.2	21.9	21.6	21.9
영업이익률 (%)	15.8	18.7	19.1	20.1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13.2	16.9	16.4	17.0

자료: 인바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213	261	315	382
현금 및 현금성자산	52	72	96	12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1	37	42	49
재고자산	38	44	51	59
기타유동자산	92	108	126	146
비유동자산	148	145	144	144
관계기업투자등	9	10	12	13
유형자산	87	83	79	76
무형자산	2	1	1	1
자산총계	361	407	459	526
유동부채	33	39	45	5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	6	7	8
단기금융부채	5	6	7	8
기타유동부채	23	27	31	35
비유동부채	8	9	10	10
장기금융부채	5	5	5	5
기타비유동부채	3	4	5	5
부채총계	41	48	54	62
지배주주지분	318	357	403	462
자본금	7	7	7	7
자본잉여금	7	7	7	7
이익잉여금	301	340	386	445
비지배주주지분	2	2	2	2
자본총계	320	359	405	464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5	2026F	2027F	2028F
P/E (x)	14.5	13.1	11.5	9.2
P/CF (x)	8.7	9.5	8.8	7.2
P/B (x)	1.4	1.7	1.5	1.3
EV/EBITDA (x)	6.9	7.5	5.9	4.3
EPS (원)	2,266	3,506	3,982	4,995
CFPS (원)	3,771	4,807	5,239	6,354
BPS (원)	23,800	26,712	30,101	34,502
DPS (원)	600	600	600	600
배당성향 (%)	26.7	16.9	14.9	11.9
배당수익률 (%)	1.8	2.0	2.0	2.0
매출액증가율 (%)	14.4	18.7	18.6	19.3
EBITDA증가율 (%)	3.5	33.8	16.4	21.3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0.0	40.2	21.7	25.4
EPS증가율 (%)	-6.4	54.7	13.6	25.4
매출채권 회전율 (회)	9.0	8.6	8.7	9.0
재고자산 회전율 (회)	6.2	6.8	6.9	7.1
매입채무 회전율 (회)	407.5	690.4	699.2	718.1
ROA (%)	9.0	12.3	12.4	13.7
ROE (%)	10.4	14.0	14.1	15.6
ROIC (%)	19.7	27.3	32.5	39.3
부채비율 (%)	12.9	13.3	13.4	13.3
유동비율 (%)	648.3	677.1	705.7	741.7
순차임금/자기자본 (%)	-40.4	-45.6	-50.1	-54.5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72.9	67.4	75.2	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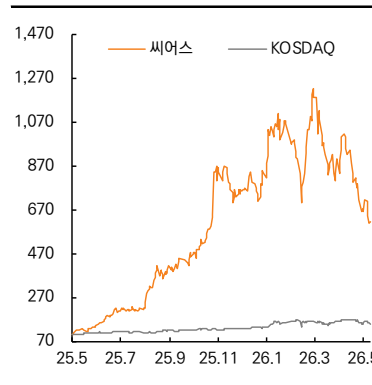
따라올테면 따라와 봐!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주가(26/5/29)	31,750원
상승여력	-

영업이익(26F, 십억원)	61		
Consensus 영업이익(26F, 십억원)	0		
EPS 성장률(26F, %)	271.9		
MKT EPS 성장률(26F, %)	239.0		
P/E(26F, x)	20.1		
MKT P/E(26F, x)	9.2		
KOSDAQ	1,074.80		
시가총액(십억원)	1,208		
발행주식수(백만주)	38		
유동주식비율(%)	71.7		
외국인 보유비중(%)	6.8		
베타(12M) 일간수익률	0.64		
52주 최저가(원)	6,043		
52주 최고가(원)	63,034		
(%)			
	1M	6M	12M
절대주가	-35.2	-29.5	412.6
상대주가	-26.4	-40.1	251.2

투자포인트

- 입원 환경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표준장비와의 동등성 입증 데이터, 대응제약의 영업력, 카테고리 창조자라는 선도자 우위, 서비스 운용 경험, 실적까지 어떤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경쟁 우위 보유
- '26년 외부 파트너(기기 및 AI 솔루션) 연동된 씽크 Plus 서비스 개시 → '27년 해외 사업 본격화 및 원격 모니터링(재택 및 병원 간)과 심전도 솔루션 적응증 확장 → '28년 씽크의 재계약 사이클 도래
- 해외 사업: 중동 초도 물량 '26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건강검진과 씽크에 대한 본계약도 진행될 예정. 미국 FDA 허가도 하반기 예상되며, 실질적인 미국 시장 진입 시점은 2Q27~3Q27 전망.
- 26년 예상 실적: 매출 1,411억원(193% YoY), 영업이익 609억원(263% YoY, OPM 43%). 씽크 설치 병상은 3만 개로 가정. 해외 매출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반영(향후 실적 상향조정 요인)
- 현 주가는 12개월 선행 P/E 19배로 동사의 고점(37배)과 글로벌 Peer(33배) 대비 저평가
- 리스크: 국내시장 경쟁 심화, 중동 사업 상용화 지연, 미국 FDA 인허가 지연, 수가 삭감 가능성 등



결산기 (12월)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십억원)	8	48	141	164	208
영업이익 (십억원)	-9	17	61	72	93
영업이익률 (%)	-112.5	35.4	43.3	43.9	44.7
순이익 (십억원)	-9	16	60	72	94
EPS (원)	-251	425	1,581	1,883	2,469
ROE (%)	-60.1	52.8	85.9	52.6	42.9
P/E (배)	-	102.1	20.1	16.9	12.9
P/B (배)	6.2	41.7	12.0	7.0	4.5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0.0

주: K-IFRS 개별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씨어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48	141	164	208
매출원가	13	48	55	69
매출총이익	35	93	109	139
판매비와관리비	18	32	37	46
조정영업이익	17	61	72	93
영업이익	17	61	72	93
비영업손익	-1	0	1	3
금융손익	0	0	1	3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16	61	73	96
계속사업법인세비용	0	1	1	2
계속사업이익	16	60	72	94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당기순이익	16	60	72	94
지배주주	16	60	72	94
비지배주주	0	0	0	0
총포괄이익	16	60	72	94
지배주주	16	60	72	94
비지배주주	0	0	0	0
EBITDA	18	62	73	95
FCF	1	44	66	75
EBITDA 마진율 (%)	37.5	44.0	44.5	45.7
영업이익률 (%)	35.4	43.3	43.9	44.7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33.3	42.6	43.9	45.2

자료: 씨어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40	107	180	283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	55	121	19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2	44	51	75
재고자산	4	5	5	8
기타유동자산	3	3	3	5
비유동자산	14	15	16	18
관계기업투자등	0	1	1	1
유형자산	12	12	14	14
무형자산	0	0	0	0
자산총계	54	122	197	300
유동부채	11	18	20	2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	13	15	23
단기금융부채	2	2	2	2
기타유동부채	1	3	3	3
비유동부채	4	4	5	6
장기금융부채	2	2	2	2
기타비유동부채	2	2	3	4
부채총계	15	22	24	34
지배주주지분	40	101	172	266
자본금	6	6	6	6
자본잉여금	61	62	62	62
이익잉여금	-29	31	103	197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자본총계	40	101	172	266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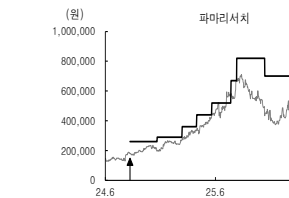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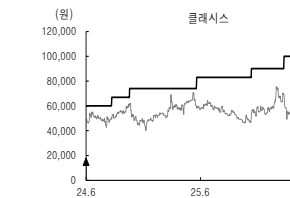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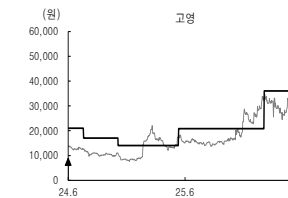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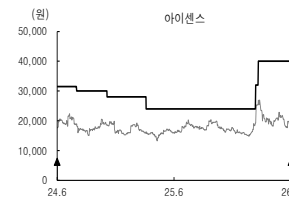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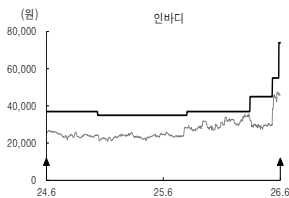
	2025	2026F	2027F	2028F
P/E (x)	102.1	20.1	16.9	12.9
P/CF (x)	82.6	19.4	16.4	12.7
P/B (x)	41.7	12.0	7.0	4.5
EV/EBITDA (x)	90.8	18.5	14.9	10.7
EPS (원)	425	1,581	1,883	2,469
CFPS (원)	525	1,638	1,930	2,497
BPS (원)	1,041	2,642	4,523	6,990
DPS (원)	0	0	0	0
배당성향 (%)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매출액증가율 (%)	494.7	192.9	15.9	26.9
EBITDA증가율 (%)	흑전	245.7	17.6	29.3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흑전	263.3	17.7	29.8
EPS증가율 (%)	흑전	271.9	19.1	31.1
매출채권 회전율 (회)	3.7	4.3	3.5	3.3
재고자산 회전율 (회)	18.4	32.2	32.0	30.8
매입채무 회전율 (회)	6.7	12.0	11.8	11.2
ROA (%)	39.1	68.2	44.9	37.8
ROE (%)	52.8	85.9	52.6	42.9
ROIC (%)	69.5	142.6	131.0	135.6
부채비율 (%)	36.8	21.6	14.1	12.8
유동비율 (%)	370.1	611.5	914.8	1,010.5
순차입금/자기자본 (%)	-17.5	-51.1	-68.0	-71.9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70.4	222.9	262.3	340.5

Compl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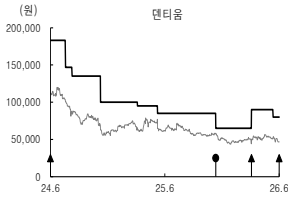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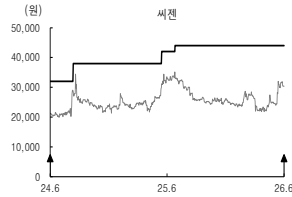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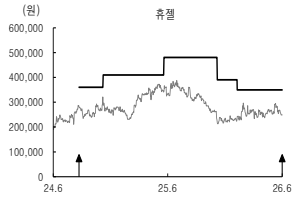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인바디 (041830)					2026.02.05	매수	600,000	-	-
2026.05.28	매수	74,000	-	-	2025.11.12	매수	700,000	-38.68	-23.71
2026.05.08	매수	55,000	-18.23	-13.91	2025.08.11	매수	820,000	-27.00	-13.29
2026.02.27	매수	45,000	-34.87	-29.78	2025.07.23	매수	670,000	-14.20	-0.90
2025.08.14	매수	37,000	-18.56	-3.78	2025.05.20	매수	520,000	-4.24	14.23
2024.11.08	매수	35,000	-32.32	-18.57	2025.03.31	매수	440,000	-15.71	-3.75
2024.05.12	1년 경과 이후		-	-	2025.02.11	매수	360,000	-14.25	-6.25
아이센스 (099190)					2024.11.20	매수	290,000	-16.78	-5.69
2026.02.19	매수	40,000	-	-	2024.08.22	매수	260,000	-21.19	-9.42
2026.02.11	매수	32,000	-23.83	-20.94	휴젤 (145020)				
2025.03.06	매수	24,000	-29.37	-15.00	2026.01.09	매수	350,000	-	-
2024.11.04	매수	28,000	-38.70	-28.96	2025.11.06	매수	390,000	-41.58	-37.05
2024.08.01	매수	30,000	-41.60	-31.67	2025.05.20	매수	480,000	-32.23	-19.17
2023.11.06	매수	31,500	-30.76	-4.60	2024.11.07	매수	410,000	-27.16	-9.27
고영 (098460)					2024.08.22	매수	360,000	-26.58	-10.83
2026.04.28	매수	52,500	-	-	씨젠 (096530)				
2026.02.03	매수	36,000	-15.72	20.83	2025.06.26	매수	44,000	-	-
2025.05.12	매수	20,800	-9.82	62.74	2025.05.15	매수	42,000	-21.86	-16.31
2024.11.04	매수	14,000	-8.60	57.86	2024.08.12	매수	38,000	-35.45	-9.34
2024.07.19	매수	17,000	-37.75	-29.24	2024.05.16	매수	32,000	-33.07	-9.38
2024.02.05	매수	21,000	-22.42	4.29	덴티움 (145720)				
클래스스 (214150)					2026.05.13	매수	80,000	-	-
2026.05.14	매수	80,000	-	-	2026.03.05	매수	90,000	-41.79	-37.11
2026.02.23	매수	100,000	-45.07	-32.60	2025.11.11	중립	65,000	-24.81	-11.54
2025.11.11	매수	90,000	-33.58	-16.00	2025.05.09	매수	85,000	-28.05	-15.41
2025.05.20	매수	83,000	-33.39	-22.53	2025.03.06	매수	95,000	-26.04	-16.84
2024.10.18	매수	74,000	-26.11	-4.46	2024.11.08	매수	100,000	-35.30	-25.00
2024.08.22	매수	67,000	-17.88	-7.76	2024.08.09	매수	135,000	-41.89	-34.59
2024.05.13	매수	60,000	-17.30	-7.83	2024.07.19	매수	147,000	-37.18	-33.20
파마리서치 (214450)					2024.02.29	매수	183,000	-32.79	-19.78

* 과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Compliance



투자이건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 매도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주가하락이 예상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약화

매수(▲), Trading Buy(■), 중립(●), 매도(◆),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 2025년 5월 12일 기준으로 투자이건 분류기준 변경(Trading Buy 의견 삭제)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 20% 미만의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금융투자분석사 재량에 따라 '매수' 또는 '중립' 의견으로 제시함

투자이건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매도
80.84%	0%	18.56%	0.6%

* 2026년 0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리브스메드 의 IPO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씨어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